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具 滋 明

우리나라 2007년 차기 대선 주자

남성 정치인의 이미지 연구

－ 색채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ages of Some Korean Politicians
Anticipated as Presidential Candidates in 2007

2005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朴 琇 鴻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具 滋 明

우리나라 2007년 차기 대선 주자

남성 정치인의 이미지 연구

－ 색채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ages of Some Korean Politicians
Anticipated as Presidential Candidates in 2007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朴 琑 鴻

朴琇鴻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5年 12月

審査委員長_____ ㉠

審 查 委 員_____ ㉠

審 查 委 員_____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색을 통하여 우리나라 2007년 차기 대선 주자 남성 정치인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 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피험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40대 성인 남녀 256명으로서 편의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일원변량 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인 선호도

전체적으로 고건과 이명박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이해찬은 선호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정치인 선호도에서는 20대는 정동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30대와 40대는 고건과 이명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 정치인 이미지 평가

고건은 중후하고 침착하며 강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 20·30대 보다 고건에 대해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고 보수적이며 침착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이명박은 강하고 활동적이며 다소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는 여자가 남자보다 진보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 20·30대 보다 활동적이고 강하며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하였으며 30대가 20·40대 보다 보수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정동영은 진보적이고 활동적이며 부드럽고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

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침착한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3·40대 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중후하고 침착하며 강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손학규는 전반적으로 이미지 평가 점수가 낮았다. 성별에 따른 손학규에 대한 이미지 평가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20·40대 보다 가벼운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이해찬은 딱딱하고 차가우며 흥분하기 쉽고 가벼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 20·30대 보다 이해찬에 대해 딱딱하고 활동적이며 가볍고 진보적이며 강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3)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

고건과 연상되는 색으로 녹색과 밤색이 많았는데, 녹색은 침착하고 강하며, 밤색은 중후하며 보수적인 이미지의 색으로, 이는 고건의 중후하고 침착하며 강하고 보수적인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였다.

이명박과 연상되는 색으로 빨강색과 파랑색이 많았는데, 빨강색은 강하고 활동적이며, 파랑색은 딱딱한 이미지의 색으로, 이는 이명박의 이미지가 강하고 활동적이며 딱딱한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였다.

정동영과 연상되는 색으로 노랑색이 많았는데, 노랑색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활동적이고 진보적이며 화려한 이미지의 색으로, 이는 정동영의 이미지가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활동적이고 진보적이며 화려한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였다.

손학규와 연상되는 색으로 하늘색이 많았는데, 하늘색은 부드러운 이미지의 색으로, 이는 손학규의 이미지가 부드럽고 침착한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였다.

이해찬과 연상되는 색으로 빨강색이 많았는데, 빨강색은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의 색으로, 이해찬의 이미지가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였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
2. 연구의 내용	3
II. 이론적 배경	4
1. 색과 색채	4
2. 색채 이미지	7
3. 정치와 정치인 이미지	19
4. 우리나라 정치인 소개	22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9
1. 연구문제	29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30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4
4. 자료 분석	35
IV. 결과 및 논의	37
1. 색채 선호도와 색채 이미지 평가	37
2. 정치인 선호도와 정치인 이미지 평가	52
3.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	63
V. 결 론	68
1. 요약 및 결론	68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72
참 고 문 헌	74
ABSTRACT	77

표 목 차

〈표 1〉 색과 색채의 속성 비교	7
〈표 2〉 색채의 연상과 이미지	18
〈표 3〉 색채의 순번과 3속성에 대한 표시	31
〈표 4〉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변인의 분포	35
〈표 5〉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 차이	37
〈표 6〉 색채 이미지 평가의 평균값	42
〈표 7〉 성별에 따른 색채 이미지 평가의 차이	44
〈표 8〉 연령에 따른 색채 이미지 평가의 차이	45
〈표 9〉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의 차이	52
〈표 10〉 정치인 이미지 평가의 평균	55
〈표 11〉 성별에 따른 정치인 이미지 평가	56
〈표 12〉 연령에 따른 정치인 이미지 평가	57
〈표 13〉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	63
〈표 14〉 정치인의 이미지 평가와 연상되는 색	67

그래프 목차

〈그래프 1〉 색채 선호도의 평균	38
〈그래프 2〉 성별에 따른 색채 선호도 차이	38
〈그래프 3〉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 차이	39
〈그래프 4〉 색채 이미지 평가의 평균	43
〈그래프 5〉 정치인 선호도의 평균	52
〈그래프 6〉 성별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	53
〈그래프 7〉 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	53
〈그래프 8〉 정치인 이미지 평가의 평균	5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색은 인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감성을 대변하는 시각 언어이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여러 가지 색에는 각각 다른 상징과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와 상징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어떤 색을 봤을 때 그 색이 가지는 이미지와 상징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색은 이미지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공통적인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색 이미지는 별도의 언어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의 언어이며 보편적인 연상으로서의 상징이며, 색에 따라 받는 인상도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색은 누구든지 쉽게 색의 이미지를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감성 전달언어이므로 사물의 특성을 색을 이용하여 표현하거나 현재 자신의 심리상태를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을 그 색의 이미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몹시 화나고 흥분되거나 열 받았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빨강색을 떠올리며 그러한 기질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빨강색의 이미지로 느낀다. 그것은 빨강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흥분과 열정을 동시에 떠올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늘 접하는 색 이미지와 사람 이미지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색채심리와 관계되어 색채에 내재된 색채의 영향으로 사람의 특성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색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람의 이미지와 연상되는 색을 접목시켜보고자 한다. 실제

로 색채를 통해 본 사물의 이미지를 표현한 연구(김경미, 1993)는 이루어져 왔지만 사람과 색과 관련시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겠다.

특히 미디어 시대에 있어 정치인은 이미지로서 평가되어지며, 정치인의 이미지는 정치인의 사활을 판가름 하는 풍토로 정착이 되어 이제 정치인의 이미지는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현대 정치의 소속 정당이나 이념의 역할이 줄어들고 대신 정치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선거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후보에 관한 유권자들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인의 이미지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대선후보자의 이미지가 투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최성원, 2003), 선거공보를 통한 정치인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강동구, 2003)로 이루어졌을 뿐 정치인의 이미지를 색채라는 시각언어를 통하여 표현하여 이미지를 추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감성전달언어이자 시각언어인 색채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 ~ 4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색의 의미를 밝히고 정치인 이미지를 평가하며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각 색을 정치인의 이미지와 관련시켜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정치인의 이미지와 색을 연결해보고 색채가 가진 심리적인 면과 정치인이 주는 이미지를 서로 연계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각인되어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보다 합리적인 선거 전략을 위한 이미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각 색을 정치인의 이미지와 관련시켜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색이미지 평가와 정치인 이미지를 평가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으로 정치인의 이미지를 파악한다.

우선 정치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에서 여론조사결과로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 10명에 대하여 인지도를 조사하여 여성 정치인을 제외한 고건, 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등 5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색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셀의 색상환에 있는 색에서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자주색과 채도는 낮고 명도가 높은 색이면서 맑고 순수한 이미지의 하늘색과 채도와 명도가 모두 중간인 색이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색인 밤색을 사람의 이미지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그리고 색과 정치인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유경숙, 1996 ; 최미경, 2003)로부터 추출한 문항과 색 이미지 스케일에서 추출한 문항에서 색이미지와 정치인 이미지에 고루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총 18개의 형용사를 추출하여 이들 형용사는 각각 상반된 이미지를 양극으로 하였다. 또한 각 색을 정치인의 이미지와 관련시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치인을 상대로 떠올려지는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색과 색채

아이작 뉴턴(Issac Newton)¹⁾은 색채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물체에 비추어 반사, 투과, 흡수될 때 눈의 망막과 여기에 따르는 시신경의 자극으로 감각되는 현상으로 보았다. 색은 사물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 빛의 특성이며, 색이 있는 사물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하게 된다. 눈을 통하여 지각하고 있는 색은 가시광선 빛의 파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인지된다. 380nm와 780nm 사이의 가시광선 영역내의 전자기 파동은 수정체를 통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있는 간상체(rod)와 원추체(cone)에 흡수되어 전기화학적 전하로 변환된 후, 신경통로를 통하여 두뇌로 전달되고 이를 색으로 인지한다. 사물들은 그 자체가 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백색광 가운데서 오로지 어떤 특정한 파장의 색만을 반사시키거나 투과시키는 능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빨강으로 보이는 사과는 빨강 파장만을 제외한 모든 광선을 흡수하며 오로지 빨강 파장만을 반사시키는 능력을 지닌 물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색이 빛의 특성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은, 어떤 사물이든 간에 정확히 객관적인 그 어떤 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며 곧 색은 환경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한다(권현정, 2002: 35~36).

여기서 ‘색’과 ‘색채’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색’은 시지각 대상으로서의 물리적 대상인 빛과 그 빛의 지각 현상을 일컫는 반면 ‘색채’는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하여 지각되거나 그러한 지각현상과 같은 경험효과를 말한다. 색이 물리적인 효과인 것에 비하여, 색채는 심

1) Issac Newton(1642-1727) ; 영국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한지옥, 2001: 4). 따라서 색의 물리적 속성을 연구하여 수학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과학적인 체계를 해명하고자한 연구는 생리학이나 물리학 화학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색의 지각, 색의 측정, 색인지 구조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색채의 심리적인 속성의 연구는 색채의미, 색채상징, 색채조화, 색채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를 다루며 심리학, 미학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색채의 심리적인 속성에 관한 연구의 기원은 괴테의 색채연구에서 비롯된다. 괴테(Johann Wolfgang Goethe)는 그 당시 중심이 되었던 광학적 원리로서 색 체계를 구성한 뉴튼(Issac Newton)을 넘어서 색채의 감성적, 도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색채의 혼돈적인(chaotic), 미학적인(aesthetic)면을 강조하였다. 색채는 유난히 우리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체스킨(Louis Cheskin)에 의하면 “색채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직관이나 상징에 의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우리들의 행위 중 거의 90%는 정동(情動)에 의해 유발되고 불과 10%만이 이성에 의해서 유발 된다”고 한다. 인간이 정보를 인지하는 감각기관은 오감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 있으며 이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요소를 지각하고 감성을 느끼기 위한 행위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 영향을 끼친다.

현상학자 메를로 폰티(Merleau-Ponty)는 인간이 지각한다는 것은 통합적이고 공감각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는데 공감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자극에 응하여 일어나는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즉, 감각의 전이를 일컫는다. 공감각 현상이란 지각은 각 감각기관으로부터의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감성에 있어서는 공통된 느낌을 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색채는 시각자극 요소이지만 이런 공감각 현상을 더욱 불러일으켜 주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한다(권현정, 2002: 45~46).

이와 같이 색채는 인체의 오감에 동시에 작용한다. 시각은 물론 청각, 촉각, 미각, 후각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감각을 색채로 표현될 수 있다. 음악과 색의 관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정립되기도 하였는데 부드러운 소리에는 부드러운 색채가, 거친 소리에는 거친 색채가 유사한 방식으로 진동한다(모던 위커, 1999: 294). 보통 낮은 음은 어두운 저명도의 색으로 대응되고 높은 음은 밝고 강렬한 채도의 색과 견주게 된다.

뉴튼은 표준 음계의 색을 빛의 스펙트럼과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라는 파장에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빛의 파장을 연결시켰다. 또한 색채는 시각적 경험 등에 의하여 색채가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를 색채의 경연감이라고 하는데 특히 한색계의 저명도, 고채도의 색은 경감(硬感)을 느끼게 하며 난색계의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색과 흰색이 많이 섞인 색은 연감(軟感)을 느끼게 한다. 색채는 또한 미각과 후각에 동시에 상호 작용을 한다. 색채학자 피버 비렌(Fabwe Birren)은 식욕을 돋우는 색을 주황색이라 하였다. 신맛은 녹색 띠 황색에 황색 띠 녹색, 단맛은 적색에 주황색, 적색 띠 황색, 달콤한 빛은 핑크색, 쓴맛은 짙은 청색(navy blue), 올리브 그린, 자색, 짠맛은 연한 녹색과 회색, 연한 청색과 회색의 배색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색계열은 쓴맛과 관계하고, 난색계열은 단맛과 관계하며, 회색 계열은 맛과는 거리가 먼 색이라고 할 수 있다(김학성, 1991: 128). 파랑색은 식욕을 저하시키는 색으로 알려져 있으며 핑크색이나 노랑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달콤한 맛과 상큼한 레몬의 향을 떠올리게 되며 파릇한 연두색을 보고 풀 향기를 느끼는 것도 색이 미각과 후각에 작용한 예이다.

<표 1> 색과 색채의 속성 비교

	색의 물리적 속성	색채의 심리적 속성
기 원	뉴턴(Newton)의 색채연구	괴테(Goethe)의 색채연구
특징	객관화/ 정량화/ 표준화	주관화/ 정성화/ 감성화
연구분야	생리학/ 물리학/ 화학 등	심리학/ 미학/ 디자인 등
연구주제	-색의 지각, 반응의 생리적 연구 -색 측정 및 관리 -도료, 염료개발 -색의 정량화(CIE System)	-색채의 미(Color Meaning) -색채 배색/ 조화(Color Harmony) -색채상징(Color Symbolism) -색채기호(Color Preference) -색채연상(Color Association) -색채 공감각(Color Synesthesia) -색채치료(Color Therapy)

2.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란 사람들이 색채에 관해 간직하고 있는 표상(表象)이다. 색채를 인지 할 때 광선이 눈을 통해 뇌에 지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색이 갖는 이미지이다(이윤주, 1999: 25). 색은 그 자체가 ‘이것이다’ 라고 잘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색채의 상징적 이미지는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배경, 지역과 풍토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한 국가나 민족, 문화별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색채이미지는 별도의 언어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의 언어이며 보편적인 연상으로서의 상징이며,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시각 언어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색채 이미지는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종합한 종합적 이미지로 구성되어있다. 색을 응시했을 때 색의 심리적인

효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칸딘스키는 색채 언어라 아였고 이 색의 심리적 효과는 연상에 의하여 쉽게 정의 될 수 있다(배한나, 2004: 65). 색채는 감성이며 이미지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공통적인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여러 가지 색에는 각각 다른 상징과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와 상징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어떤 색을 봤을 때 그 색이 가지는 이미지와 상징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예를 들면 빨간색의 경우 빨강색에 대한 느낌이 태양과 같은 뜨거운 정열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불이나 주의를 요하는 응급시의 상황을 느끼는 사람, 또는 금지된 무엇을 느끼는 사람 등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상의 개념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은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고 과거와 현재의 여러 가지 기억과 경험, 지식 등에 따라 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다(김학성, 2000: 132). 따라서 이미지는 뇌중추의 흥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심적 현상이며 과거의 경험이 자유롭게 재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연상을 구분하여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색이 가진 이미지와 구체적 연상과 추상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빨강

빨강색은 스펙트럼의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진동이 많고 활력적인 색이다. 감각과 열정을 자극하는 색으로 강력한 감정과 함께 사랑과 분노를 연상시킨다. 식욕, 성욕, 감정과 같은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본능을 대표하는 색이다. 야망이나 새로운 출발을 연상시키며 뜨거움, 흥분, 혈액의 왕성한 순화 등의 느낌을 준다. 지속성, 육체운동, 힘, 궁지 등은 모두 빨간색의 속성이다.

하지만 과도한 빨간색은 노여움, 남성적인 공격성 등의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메리 램버트, 2001: 20). 빨강은 열정, 힘, 활동성, 따뜻함이라는 적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자극적이고 각성적이며 흥분을 일으키는 색인데 사람의 본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격한 감정을 느끼면 얼굴이 붉게 변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몸에 붉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며 빨강색은 바라만 보아도 맥박이 빨라지는 기운이 강한 색이다. 빨강색이 지닌 따뜻한 온도감은 빨간색이나 분홍색으로 칠해진 방에 있을 때 온도가 파란색으로 칠해진 방보다 온도가 낮아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설명되어진다. 화려함의 대명사로서 빨강색은 연회장이나 파티를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색이기도하다. 또한 남성적 공격성을 지닌 이미지로 전쟁이나 증오, 분노, 광기, 불 등과 연결되기도 하며 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기도 하였다. 전쟁과 지배, 반란, 혁명, 악마, 죄인을 의미하며 전쟁의 신인 ‘화성(Mars)’을 의미하기도 한다. 빨강색의 또 다른 의미는 권력과 힘의 상징이다. 아마도 모든 색 중에서 가장 위압적이고 역동적인 색일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종 정치적, 종교적 의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상도 역시 빨강색이다. 역동적인 에너지와 함께 귀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며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색이다. 빨강은 대담하게 다가오는 색이며 결코 머뭇거리는 이미지가 아니다(최현정, 2003: 30).

2) 주황

주황색은 대체로 빨강색의 일부 속성을 가지지만 보다 부드러운 여성적인 느낌을 연상시킨다. 긍정적인 면으로서의 주황은 대화, 야망, 즐거움, 포용성,

풍부함, 관대함, 감수성을 연상시키며 부정적인 면으로는 증오, 오만함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황색은 흥분과 열정, 야망, 성취 등의 빨강색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인 대화, 유기적임, 즐거움 풍부함, 관대함 등의 노랑의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색상환에서 빨강과 노랑의 사이에 위치하는 색으로 두 색의 이미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황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주황색은 생기발랄한 인상을 준다. 활기차고 즐거운 인상을 주며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준다. 노랑색과 함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손꼽히는 주황색은 아동복이나 장난감의 색으로 흔히 볼 수 있다. 오렌지 빛깔에서 느껴지는 툭툭 튀는 상큼함과 달콤한 이미지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범하지 않고 튀어 보이는 효과도 준다. 테라코타와 같이 흙빛에 가까운 주황색은 차분하고 가라앉은 인상을 주지만 채도가 높은 주황색은 어디서나 눈에 띈다. 그래서 주황색은 광고나 거리의 간판 색으로 많이 사용되며 위험, 경고를 뜻하는 주의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요소가 주황색의 약점이기도하다. 튀어 보이는 색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과도한 주황색은 오히려 경박하고 값싼 이미지, 천박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또한 주황색을 ‘영양분의 색’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살구 오렌지 당근 등과 같이 자연에서 얻어지는 많은 먹거리들의 색이 주황색이며 이는 식욕을 돋구어주는 대표색이기도 하다(I.R.I.색채 연구소, 2003: 20).

3) 노랑

노랑색은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밝게 느껴지는 색이다. 원색 중에서도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는 색으로 사람들은 노랑색으로 인해 긴장을 느끼

고 집중하게 된다. 고대로부터 통치자의 색으로 쓰였으며 빛나는 태양빛이나 황금빛 등으로 연상되며 이러한 밝다는 감각은 지혜와 지능을 상징하며 지성과 관련이 있으며 종교적인 표현으로 빛과 존경과 신앙을 상징한다.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의 노랑색이 존재하는데 타오르는 불꽃에서 황금, 레몬, 옥수수, 샤프란, 황금물결의 보리밭, 은행잎, 크림, 버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노랑색은 기분 좋고 상쾌한 색으로서 이미지도 밝고 낙천적이며 활기차다(미미 쿠퍼 외 1, 2002: 60).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동시에 지혜와 이해심 통찰력을 불러일으키는 색이기도 하지만 차분하지 못한 색으로 느껴지기도 쉽다. 너무 지나치면 자기중심적이며 싫증이 나며 정신과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분열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정신적 초조감을 가져온다.

동양에서는 왕실과 불교권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색으로 신성함을 상징하지만 서양에서는 비겁과 편견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중세의 화가들은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그릴 때 노란색의 옷을 입힘으로써 배반자의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히틀러는 유대인에게 노란색별을 달도록 하였으며, 황색 언론(yellow journalism)이라 하여 개인의 비밀이나 추문을 폭로하는 따위의 저속한 기사를 다루는 언론을 노랑색의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였다. 또한 적의 공습을 알리는 황색경보(yellow alert), 운동경기 시 심판이 반칙한 선수에게 내미는 경고의 메시지인 옐로카드 등 노란색을 나쁜 의미로 사용한 경우는 많이 있다. 명도가 높은 노랑색은 주목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안전관련 시설물이나 어린이 비옷, 통학버스의 색으로 흔히 사용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랑색을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밝고 귀여운 색, 즐겁고 단순한 색으로 생각하며 탁하거나 어두운 색조의 노랑색은 ‘나이가 많은’ 이미지로 받아들여기도 한다(I.R.I. 색채연구소, 2003: 22~23).

4) 녹색

녹색이 주는 이미지는 건강함과 신선함, 자연의 생명력을 연상시킨다. 봄에 피어나는 파릇한 새싹, 연두에서 짙은 초록을 포함하는 녹색은 여름의 울창한 숲과 열대의 짙은 바다를 느끼게 하는 자연의 색이면서 사람의 눈과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색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숨 쉴 공기와 먹거리를 제공하듯이 녹색은 생명력이 있는 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풀과 나뭇잎, 라임, 민트, 엽록소가 풍부한 채소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로운 색으로 봄과 여름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녹색은 젊음을 나타낸다. 때로 녹색은 미성숙의 의미로 혈기 왕성하지만 경험부족으로 실수가 많은 젊은이의 모습을 녹색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녹색은 안전을 의미하는 색과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색채로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녹색이 풍요, 젊음, 신선함, 희망, 안전, 평화를 연상시키며 이는 동서양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녹색은 사람과 가장 친한 색이면서도 소유색이 아닌 공유색이다. 녹색을 선호하는 색으로 꼽으면서도 소지품의 색이 빨강이나 노랑, 파랑색인 경우에 비해 녹색인 경우는 드물다. 아무래도 녹색은 자연 속에서 보아야 할 색이지 인간의 몸에 지니려 하는 색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녹색은 한 이미지 조사에서는 ‘미래의 색’이라는 조사가 나왔는데 미래에 대한 평화나 안전을 기대하는 희망이 표현이며 또한 과거의 향수, 고향, 자연 등의 이미지와 인식, 평화, 위안, 이상, 순정, 신뢰, 젊고 미숙함, 신선함,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등의 추상적 연상을 지닌다(하용득, 1989: 229). 녹색은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지만 때로는 전혀 반대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찢기 없는 얼굴은 초록기로 느끼거나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파충류 대부분이 녹색이며 영화 속에서 지구인을 괴롭히는 외계인

들의 모습이 녹색으로 표현되는 것에서 녹색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녹색 빛은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입술을 검게 보이게 하고 살빛을 창백하게 표현한다, 범죄자에게 자백을 강요할 때 녹색색광을 비추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서양에서는 ‘녹색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미신이 있을 정도로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는 사업이 실패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그 표시로 녹색 모자를 쓰기도 한다. 서양인들이 녹색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럽을 침략하여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이슬람 문명의 상징색이 녹색이기 때문이다. 중동의 아랍권 국가들의 국기의 주조색이 대부분 녹색인데 국기의 색이 곧 그 나라의 전통과 사회 심리학적 선호도와 연관이 있다는 설로 유럽과 아랍인들의 녹색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 연상이 설명되어 진다(배한나, 2004: 49).

5) 파랑

파랑색은 대표적인 한색(寒色)이다. 시원한 바다와 물을 연상시키는 파랑색은 뜨거운 생명력을 지닌 빨강색과는 대조적으로 빨강색이 육체적이고 능동적이라면 파랑색은 정신적이고 수동적이다. 내성적이면서 차분함을 유도하는 색이며 지성적인 색이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색이 아니라 오히려 물러나는 색이다. 사람의 호흡과 맥박을 빠르게 하는 빨강색과는 대조적으로 파랑색은 맥박을 느리게 하고 체온을 낮추며 마음을 차분하고 안정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평온함과 진실을 나타내며 영적인 면과 지혜로움과 연결하기도 한다. 로마에서 철학자들이 푸른색 옷을 입었고 기독교인들의 예술에 있어 파랑이 희망과 신앙을 표현하는 색으로 성스러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힌두교에서 신은 파랑색으로 나타내고 중국에서는 파랑을 하늘의 힘과 영생을 상징하는 색

으로 쓰이고 있다(전수경, 1999: 19). 파랑색을 녹색과 함께 자연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연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색은 아니다. 바다와 하늘이 파랑색 계열이고 소수의 꽃 종류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비꽃이나 붓꽃 등이 보라기를 띤 파랑색으로 노랑이나 빨강색에 비하면 그 수가 훨씬 적다. 또한 음식 색상으로 파랑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파랑색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파랑색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 차분하고 시원한 색으로 평화로운 기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색이면서 충성과 신뢰감, 명예를 연상시킨다. 세계적으로 항공사, 신용회사, 금융회사의 약 70~80%가 파랑색을 기업의 색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도와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의 이미지와 파랑색의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파랗게 젊다’는 표현처럼 파랑색은 젊고 싱싱한 의미의 색이며 역동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스포츠 웨어, 유니폼에서 파랑색을 사용하는데 바로 젊음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지닌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조용하고 고뇌와 센티멘탈한 감정을 음악으로 나타낸 곡으로 ‘블루스’라는 명칭을 붙이는 데 이것은 파랑색의 사색적이고 차분한 이미지와 무관하지 않다. 천재 화가 피카소의 경우 ‘청색시대’의 작품들은 피카소의 20대의 작품들로서 친구의 자살로 인한 충격으로 피카소가 우울한 시기에 그린 작품들이며 우울과 삶의 무기력, 절망감, 냉소 등을 표현하면서 청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파랑색의 이미지 중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6) 하늘색

파랑색에서 흰색이 가미되어 파생된 하늘색은 파랑색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

는다. 자연계에서로부터 맑은 하늘을 연상하여 붙여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상의 것, 신의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닿을 수 없는 꿈이나 환상, 현실 상실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하늘색은 파랑색에서 흰색이 섞여진 색상이기 때문에 파랑색이 갖는 성질인 시원함과 청량감을 주는 동시에 명량, 경쾌함, 희망과 순수, 깨끗함, 맑음 등의 이미지와 흰색이 갖는 성질인 깨끗함과 고결, 순수, 조용함, 안락함 등의 이미지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랑색이 젊음과 신뢰, 사색의 이미지라면 하늘색은 그보다는 약한, 여린 이미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7) 밤색

주황색에서 회색이 첨가되어 파생한 색으로서 밤색이 있는데 갈색이라고도 칭하는 이색은 땅의 색이다. 자연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색채로 낙엽이나 나무, 벽돌, 황토색, 질그릇의 색상이 밤색에 속한다. 사람이 흙을 밟고 살며 땅의 소산물인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꽃과 나무 풀들이 땅으로부터 나와 각각의 아름다움이 조화되는 것처럼 밤색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색이며 안정되고 바탕이 되는 색이다. 따라서 밤색이 갖는 이미지는 대지의 어머니를 느끼게 하는 관용과 포용, 책임감과 신용, 착실, 성숙, 인내, 무던함 등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밤색은 딱딱하면서 건조한 느낌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마르고 쓸쓸한 가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밤색만큼 어울리는 색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극단적인 보수주의의 성질을 띠며 인색함 또는 편집증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8) 보라색

보라색은 빨강색과 파랑색의 혼합되어 생긴 색이다. 따라서 보라색은 빨강색의 힘과 권위와 파랑색의 고결함과 지혜를 합친 극과극의 이미지를 가진 신비로운 이미지의 색이다. 화려하고 우아한 색이면서 환상적인 느낌을 갖는다. 자연계에서 보라색을 찾는다면 포도, 가지, 히아신스 등 몇 종류의 꽃에서 찾을 수 있을 뿐 그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색은 아니다. 또한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도 없는 색으로 보라색은 특별한 색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색들이 그러하듯 보라색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선 보라색은 고귀함과 권력의 의미를 상징한다. 영문에서 ‘be born in the purple’ 이라 함은 ‘왕후의 신분으로 태어나다’는 의미이며 ‘be raised to the purple’ 은 ‘왕위에 오르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이렇듯 보라색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세에서는 보라색이 주로 조개에서 추출한 염료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라색은 매우 희소성이 있는 고귀한 색으로 인식해왔다. 또한 보라색은 태양색광에 포함되지 않는 색으로 금방 바래기 쉽고 변색되기 쉬운 색이므로 보라색은 응달에서 부드럽게 다루지 않으면 고유성을 찾기 어려운 색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래서 보라색의 이미지는 빛이 이미지는 빛이 있는 양지를 회피하는 이미지로서 때로는 병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이흥규, 1999: 129). 이렇게 우울과 비애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허영의 이미지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색으로 보라색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들은 여성적인 빨강색과 남성적인 파랑색이 섞여 보라색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9) 자주

자주는 보라색에서 붉은 색이 더 가미되어 나타난 색으로 ‘붉은보라’라고도 한다. 따라서 보라색이 지닌 이미지와 빨강색의 이미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데 자주색의 이미지는 고귀하고 정신적인 풍요와 품위, 귀족적인 이미지와 화려함과 열정의 이미지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는 연회장의 장식 색조로 빨강색의 경우보다 한 차원 높은 품격 있는 이미지로 연출하는데 자주색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주색이 지닌 고유한 이미지와 잘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색도 짙어질수록 음모적이고 암울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적이고 조작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어두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표 2〉 색채의 연상과 이미지

색명	구체적 연상	추상적 이미지
빨강	피, 불, 태양, 사과, 딸기, 장미꽃, 입술, 포도주, 금붕어, 단풍잎	정열, 혁명, 활력, 흥분, 분노, 생명, 열광, 폭발, 에너지,
주황	저녁놀, 밀감, 가을 불꽃, 당근, 오렌지, 화로	애정, 식욕, 온화, 희열, 만족, 풍부, 포근함, 유쾌, 약동, 건강, 친근감
노랑	개나리, 병아리, 봄, 나비, 해바라기, 바나나, 금, 안전모자, 어린이	명랑, 온화, 화려, 질투, 포근함, 환희, 주의, 팽창, 경박, 천박
녹색	초원, 숲, 여름, 바다, 산, 호수, 에머랄드, 교통신호, 식물, 파초	상쾌, 안정, 안전, 평화, 희망, 중성, 이상, 지성, 건실, 소박, 젊음
파랑	바다, 푸른 눈, 호수, 파랑새, 잉크, 여름	희망, 청결, 젊음, 냉혹, 청순, 시원, 명상, 심원, 우울, 고뇌, 냉소
하늘색	하늘, 공기, 시냇물, 구름	맑음, 순수, 청결, 청량감, 고결, 희망
밤색	나무, 낙엽, 벽돌, 질그릇,	신용, 인내, 성실, 성숙, 무던함, 건조, 투박, 서민적, 관용, 보수적
보라	포도, 가지, 보석, 명, 병자, 귀부인, 라일락, 등나무 꽃	고귀, 고독, 창조, 신비, 우아, 위엄, 신앙, 신성, 추함, 적막감, 번덕, 허영, 동성애
자주	포도주, 카펫트, 연회장, 농익은 열매	고귀, 품위, 풍요, 음모, 부정

3. 정치와 정치인 이미지

1) 정치·정치인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권력의 획득·유지 및 행사를 위한 투쟁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여러 현상(동아 새국어사전, 1995: 1898)을 의미하며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협력·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정치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사회적 도덕이나 자율적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통치 작용이나 아래로부터의 항쟁을 정치로 보았고, 둘째는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 활동 뿐 아니라 모든 인간 생활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통제의 작용을 모두 포함한 것도 정치로 보는 견해와 셋째,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에 사회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항쟁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활동을 정치의 본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것에 따르면 자기편에게는 가장 우호적인 단결과 협력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정치의 형태이다(<http://www.doosan.com/politic>). 이상을 정치로 규정한다면 작계는 민간단체, 시민 연합의 제 목소리내기에서부터 의견 수렴, 조정, 크게는 국가를 다스리는 행위까지 모두 정치의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인은 정치적인 모든 행위의 실체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라 함은 국가의 크고 작은 문제와 통치 권력을 놓고 여·야간에 입장을 대립하거나 조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치 권력을 얻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장, 국무총리, 장관, 경기도지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2007년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한 이들로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정치인의 대표로 규정하였다.

2) 정치인 이미지

‘이미지’라는 말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용어 중의 하나이다. 이미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지는 메시지, 명성, 지각, 인지, 태도, 신뢰성, 신념, 커뮤니케이션, 관계 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보울딩(Boulding)은 이미지를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즉 나의 주관적인 지식’이라고 말한다. 각각의 이미지는 사물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인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리프만(Lippmann)은 이미지를 ‘우리들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머릿속의 그림’이라고 했다. 부르스틴(Boorstin)은 이미지를 특정대상의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모방이나 재현을 뜻하며 특정사건에 대한 참되고 진실된 면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허구적인 관념이 바로 이미지라고 하였다. 펜로드(Penrod)는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로도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때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대상의 몇몇 특성들을 핵심적 속성이라고 한다. 이들 몇몇의 핵심적 속성들이 다른 부분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어서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미지가 형성되며 그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 형성과정은 각 분야에서 인용되지만 정치인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김영수, 2000: 41에서 재인용).

정치인들은 대중들의 지지에 의해 정치 생명이 좌우된다. 즉,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고도의 정치기술을 갖춘 전문직업인이라 할 수 있다. 대중을 상대로 하되 일일이 개인을 만날 수는 없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대중들의 눈과 귀가 따라다니며 그들을 주목한다. 대중들은 반드시 이성과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정치인을 평가하거나 선호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중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정치인의 이미지로서 주관적인 느낌으로 평가한다. 이미지란 개인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 개념, 인상의 총합을 의미한다(박병준, 1991: 173). 이미지는 실체화된 허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단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것이 실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그의 신념이나 감정, 후보자의 정치적 경력, 역할, 자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이미지는 다양한 영상을 통한 총체적 이미지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으로 불리는 이미지의 상기와 이슈의 상기를 비교해 볼 때, 응답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 전체를 통해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한 기사를 훨씬 더 많이 상기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후보자들의 토론 직후 이미지 상기율은 이슈 상기율의 2배이었다고 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투표행위에 관한 연구는 유권자의 소속 정당이나 이념의 역할이 꾸준히 줄어들고 대신 정치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선거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중매체가 정치과정의 중심으로 파고들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정당조직 중심의 정치가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 중심의 정치로 대체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조직에서 이미지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현대정치의 역학변화는 정치후보에 관한 유권자들의 이미지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미디어 시대에 있어 정치인은 이미지로서 평가되어지며 정치인의 생명은 이미지 관리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비추어지는 정치인들의 이미지는 이성과 합리적 판단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정책 이슈와는 달리, 이미지는 심리와 인지, 인상, 연상, 직감 등과 관련이 있다. 이미지는 또한 논리적 정보보다는 시청각 정보, 감성, 감정적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미지는 정치인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의심받고 ‘옳고 그름’에 관한 규범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최영재, 2004: 119). 많은 연구는 정치 후보의 이미지가 능력과 인품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며 정치인 이미지를 지도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과 같은 정치적 이미지와 도덕성, 신뢰성, 매력 등에 관한 개인적 이미지로 나누고 있다. 정치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은 서로 대립되기도 하며 보완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미디어가 집중 보도한 개인적인 성 스캔들에 휩쓸렸지만 유권자들은 그의 개인적 속성 대신 정치적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탄핵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재선에도 승리할 수 있었다. 반면에 198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섰던 게리 하트(Gary Hart)의 개인적 성추문의 경우는 관련 보도가 공적인 이미지 손상까지 초래해 게리 하트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중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현실 정치의 사례들은 정치인 이미지의 정치적 공적인 이미지 속성과 개인적 사적인 속성이 서로 모종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영재, 2004: 121). 따라서 실제로 이미지가 진상이든 허상이든 간에 정치인들은 이미 대중들로부터 어떠한 이미지로서 각인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4. 우리나라 정치인 소개

우리나라 정치인의 이미지의 조사에 앞서 5명의 정치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고 건

고건은 1938년 1월 2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하였으며 경기고등학교와 서울 문리대 정치학과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를 하였다. 미국 하버드대학 객원연구(1983년)와 미국 M.I.T. 국제문제 연구소 객원연구원(1984년)을 지냈고 원광대학교와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1992년, 2001년)를 받았다.

서울대 재학 시절 총학생 회장(1959년)을 하였고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이래로 강원도 부지사와 전라남도 지사,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을 거쳐 교통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내무부장관 등 3개 부처의 장관을 역임했고 12대 국회의원(1985~1988)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제2기 민선시장을 포함하여 2번의 서울시장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하였으며 잠시 공직을 떠나 있는 기간에는 명지대 총장을 지낼 정도로 정·관·학계를 넘나들며 두루 요직을 거쳤다(<http://www.opm.go.kr>/국무총리실 자료마당). 각 기관에서 행해진 2007년 대선 예비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한계레 30%, 동아일보 35%) 그 이유로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 대통령 권한 대행 때 보여준 리더십이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되는 안정적 이미지가 인기의 원동력이라는 분석으로 보고 있다(<http://www.chosun.com/politics>). 그러나 고건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2003년 2월 고건 전 총리의 인사 청문회 때 논란이 되었던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일 3일간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경우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1주일간 잠적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국가위기 때마다 몸을 숨긴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

니고 있다. 또한 고건은 박정희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7명의 대통령 밑에서 고위 관직(총리, 서울시장, 도지사, 교통·농수산·내무부 장관)에 오른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료로서 화려한 경력이 ‘행정의 달인’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처세의 달인’ ‘무사안일의 표본’이라는 부정적인 비판을 받기도 한다(<http://www.hankooki.com/politics>). 1987년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 시 ‘6·10 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한 중심에 있었고 1997년 IMF 환란 당시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것이 고건의 약점으로 꼽히며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결정은 본인이 하지 않고 위원회나 일회성 심사단을 구성해 결정하는 업무스타일로 인해 ‘민주적’인 평가와 ‘결단력 부족’ ‘자기 관리를 위한 책임 회피’라는 양면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2) 이명박

1941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영일에서 출생하였다. 고려대 상과대학(1965년)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려대 상대 회장으로 있을 때 6.3사태를 주도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6개월 동안 복역하였다. 이듬해 현대건설(주)에 입사하였고 입사 5년 만에 이사, 12년 만에 최고 경영자가 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라는 별칭을 얻었다. 1992년까지 현대그룹의 8개 계열사의 대표이사·회장을 지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서 민선시장인 서울시장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른다(<http://www.100naver.com>). 이명박은 대기업에서 청·장년기를 보내며 야망을 이루었고 부과 명예를 얻었다. ‘불도저’ ‘CEO형 정치인’이란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믿고 결정한 사항에는 과거 사기업에서 해온 밀어붙이기식의 특유의 추진력이 정치이력에도 반영되고 있어 타 정치인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한 예로 청계천 복원을 위한 복개공사를 실시할 당시에도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으나 정작 이명박 본인은 청계천 복원을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는 사명의식으로 강행하였고 청계천 복원 공사에 들어가기 전 반대하는 사람들을 4000번이나 만나 설득 할 정도로 발로 뛰며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인이며 결과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http://www.hankooki.com>). 그러나 ‘개발독재시대 산업역군’ 과 ‘재벌 정치인’ 을 연상시키는 재산 형성 과정 의혹 등이 이명박의 이미지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3) 정동영

1953년 전라북도 순창에서 출생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재학시절 유신 반대 시위 등 학생운동으로 두 차례 감옥살이를 하였다. 대학을 마친 뒤 MBC(문화방송)에 입사한 이래 17년간 정치부, 사회부기자를 거쳐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등을 지냈다. 뉴스 앵커로 활동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1996년 대학 동창인 이해찬 의원의 권유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16대 국회의원직을 시발로 국민회의와 민주당을 거치며 대변인을 세 차례에 걸쳐 40개월이나 맡았고, 이때 쌓인 대중적 인지도는 정치적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http://www.terms.naver.com>).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열린 우리당의 창당을 이끌었다.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서 올린 각종 성과들(6자 회담 합의문 타결)로 남북 관계의 진전이 정동영의 대표적 업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앵커출신의 깔끔한 외모와 매끈한 언변과 함께 정치지도자로서의 ‘내실’ 을 다져주고 있지만 ‘비디오형 정치인’ 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미디어 정치 과잉’ 에서 정동영의 단점을 찾기도 하는데 카메라와 조명아래서 연출된 행동을 한다

는 지적은 방송 앵커출신의 정치인으로 관습화된 행동이 실속보다는 겉모양으로 승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통일부 장관이지만 통일에 대한 식견과 이론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http://www.chosun.com/politics>).

4) 손학규

1947년 11월 22일 경기도 광명에서 출생하였다.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시절에는 남대문 시장과 서울역 일대를 떠돌며 세상 체험을 하였고 대학 졸업 후에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였다. 빈민운동 때문에 수배자로 2년간 떠돌이생활도 하였다. 인하대 교수(1988)와 서강대 교수(1990)를 지냈으며 1993년 광명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다. 학생·재야운동과 대학교수, 3선 의원, 보건 복지부 장관 등의 경력을 거쳤지만 자기 목소리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http://www.news.naver.com>/매일경제). 2002년 민선 경기도 지사로 당선된 이후 현재에 이른다.

손학규는 한나라당과는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경력들이 병존하는데 한나라당의 뿌리와 대척점에 섰던 민주화 투쟁 경력이 그것이다. 경기고, 서울대, 옥스퍼드대 박사, 대학교수, 국회의원, 도지사의 이력은 우리 사회의 주류의 모습이지만 운동권 투쟁 경력과 노동 운동, 빈민 운동은 정치인 손학규가 품고 있는 상반된 성격의 경력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치권의 비판적 시각에선 출신 진영과 새로운 진영, 어느 쪽에도 자리를 못 잡고 중간지대에 서있는 ‘마지널 맨(marginal m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http://www.chadaeja.com>). 그러나 손학규는 운동권 출신의 열정, 정치

학 박사 출신의 식견에 특유의 부지런함까지 갖추고 있다. 2002년 6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외자 유치액을 14조원이나 만들었고 그 결과 경기도민들에게 우직하게 일하는 지사로 높은 행정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성과만큼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중에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 부족, 정치적 동지를 모으는 결속력 부족, 큰 흐름을 읽어내는 정치적 감각 부족 등이 손학규의 인지도 구성요소에서 다소 밀리는 지적을 받는다. 장점을 두루 갖춘 양질의 정치인이지만 카멜레온 같은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판에서 지식인의 이미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자출신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우세다. 또한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유부단함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대미정책과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손학규는 보수성향인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앞장서 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폐지와 대체 입법을 지지해 젊은 층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찬성하고 주한 미군의 여중생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에도 콘서트에 주한미군을 초청하는 등 친미적인 태도도 보여 국민들을 헛갈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받았다. 과거 운동권 민주 투사에서 보수인사로 어색한 변신은 여전히 손학규의 정치색깔을 모호하게 하는 부분이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

5) 이해찬

1952년 7월 10일 충청남도 청양에서 출생하였다. 용산 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시 민청학련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투옥되었다. 13대 평민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민주당을 거쳐 열린 우리당 의원으로 5선의 중견 정치인이다. 정책위 의장 3번,

서울시 부시장, 교육부 장관, 집권여당의 최고 위원이었으며 대선 때마다 기획본부장을 맡았으며 현재에는 국무총리로 활동 중이다. 이해찬은 2004년 8월 분권국정운영체제가 도입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대부분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정책 사안의 방향을 잡는 등 국정운영을 도맡아온 광복이후 최고의 ‘실세총리’ ‘책임 총리’로 불린다. 이해찬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밀어 올린 것도 대중적 인기보다 그의 뛰어난 업무 추진력에 의해서다. 그래서 이해찬을 말할 때 ‘일’과 ‘추진력’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소신 있는 정치인’ ‘고집불통 오만’이라는 양 극단의 상반된 평가가 이해찬을 말해주는데 소신과 독설에 가까운 거침없는 화법은 이해찬의 장점이자 큰 단점이다(<http://www.chadaeja.com>). 깊은 고민 없이 내뱉은 듯한 수많은 말들은 적을 내편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선거에서 내편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 이해찬의 ‘막말’은 2004년 10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 고속도로에서 수 억원 씩 받은 정당’이라고 언급해 국회가 2주일가량 공전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했다. 이해찬은 교육부 장관 시절 ‘신념’과 ‘정직’을 내세워 강도 높은 개혁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래서 수행 학습 평가제를 도입하여 내신 반영률을 높이고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꾸는 등 교육개혁을 실행하였다. 2002년도 대입학생을 ‘이해찬 1세대’라는 신종어로 불리어지기도 하는데 이전의 대학생들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차별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만만함은 때로 오만함으로, 신념은 독단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http://www.chosun.com/politics/news>).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와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 1) 색채 선호도와 색채 이미지를 평가한다.
- 2) 성별,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색채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한다.
- 3) 정치인 선호도와 정치인 이미지를 평가한다.
- 4) 성별, 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와 정치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한다.
- 5) 색 연상에 따른 정치인 이미지를 파악한다.

2) 용어 정의

- 1) 색채 이미지 : 색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한다.
- 2) 정치인 이미지 : 정치인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한다.
- 3) 색채 선호도 : 색에 대하여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 4) 정치인 선호도 : 정치인에 대하여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 5) 색 연상 :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 색이 가지는 이미지와 상징으로 표현되어 떠오르는 색을 말한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1) 측정도구

(1) 정치인 선정

2005년 1월 13일 조선일보가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천 48명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이회창, 고건, 박근혜, 이명박, 정동영, 김근태, 손학규, 강금실, 이해찬, 정몽준(조선일보 1월3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은 박근혜, 강금실을 제외한 8명에 대하여 인지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상위 5위 정치인으로 고건, 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총 5명을 선정하였다.

(2) 형용사 이미지 추출

색과 정치인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유경숙,1996: 최미경, 2003)로부터 추출한 문항과 색 이미지 스케일에서 추출한 형용사를 합하여 총 18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형용사 쌍은 색이미지와 정치인 이미지에 고루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 형용사는 각각 상반된 이미지를 양극으로 하였다. 보수적인- 진보적인, 활동적인- 정적인, 약한 - 강한, 부드러운-딱딱한,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 감성적인 - 이지적인, 가벼운 - 중후한, 따뜻한 - 차가운, 화려한 - 수수한의 총 9개 문항이었다.

(3) 색상 선정

색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색상에 의해 색을 분류할 수 있는 유채색 중에서 선택하였다. 따라서 무채색은 제외하였다. 유채색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선 먼셀의 10색상환은 근거로 하였는데, G, GY 계열 색상에서는 녹색을 택하고, BG, B, PB 계열 색상에서는 파랑색을 택하였다. 이러한 색은 대체로 명도는 낮고 채도가 높은 색으로 색 이미지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채도는 낮고 명도가 높은 색이면서 맑고 순수한 이미지의 하늘색과 채도와 명도가 모두 중간인 색이며 안정적인 색인 밤색을 사람의 이미지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하늘색, 파랑, 밤색, 보라, 자주 등 총 9색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색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먼셀 색체계를 기초로 하여 I.R.I 색채 연구소에서 개발한 색채시스템에 의거한 표준색의 색종이를 1.5cm 의 크기로 잘라 질문지에 부착하였다. 사용한 색종이의 색상번호, 색상과 톤, 먼셀의 색상, 명도, 채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색채의 순번과 3속성에 대한 표시

색상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하늘색	파랑	밤색	보라	자주
순번	1	2	3	5	47	7	82	9	20
H/T	R/V	YR/V	Y/V	G/V	B/VP	B/V	YR/DI	P/V	RP/V
H V/C	5R 4.5/12	5YR 6.5/14	5Y 8/12	5G 5/11	5B 9/2	5B 4/9	5YR 5/6	5P 3/11	5RP 5/10

유채색이 가진 고유한 의미는 각각 다르며 의미와 속성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색들이다. 즉, 빨강색은 정열과 열정으로 대표되는 색이면서 활동적이며 진보적인 색으로, 주황색은 생기발랄하고 활기차고 즐거운 인상을 주는 색으로 선정하였다. 노랑색은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녹색은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안전과 평화를 의미하는 색으로, 하늘색은 맑고 순수한 이미지와 가벼운 이미지로, 파랑색은 차갑고 이지적인 이미지로서 채택하였다. 밤색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색으로, 보라는 화려하고 신비적인 이미지로, 자주색은 품위 있는 색으로 각각의 의미의 대표성을 두었다.

2) 측정방법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 설문지 구성은 정치인 인지도, 색과 정치인 선호도, 색과 정치인 이미지, 정치인과 색 연상, 인구 통계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2005년 8월 18일부터 8월 28일에 걸쳐 20-40대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의 정치인 가운데 모르는 정치인도 있다고 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5명의 정치인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명의 정치인에 대하여 인지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응답자가 모르는 정치인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않게 하거나 설문 응답을 받지 않았다.

(2) 본조사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정치인 인지도, 색과 정치인 선호도, 색과 정치인 이미지,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 인구 통계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① 색채 이미지 평가

9가지 색에 대하여 9개의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의미미분화법²⁾을 사용하여 양극의 형용사를 대칭으로 하여 ‘매우 그렇다’에 1점과 7점을, ‘중간’인 경우에 4점을 주는 형식의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1, 2점에 가까울수록 왼쪽 형용사의 이미지에 가깝고, 6, 7점에 가까울수록 오른쪽 형용사의 이미지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② 정치인 이미지 평가

5명의 정치인에 대하여 9개의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의미미분화법을 사용하여 양극의 형용사를 대칭으로 하여 ‘매우 그렇다’에 1점과 7점을, ‘중간’인 경우에 4점을 주는 형식의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1, 2점에 가까울수록 왼쪽 형용사의 이미지에 가깝고, 6, 7점에 가까울수록 오른쪽 형용사의 이미지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건의 이미지가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서 5.51의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침착한 이미지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③ 색채 선호도와 정치인 선호도

9가지 색과 5명의 정치인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점의 리커트형 척도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우 싫어한다’에 1점, ‘매우 좋아한다’에 5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색 선호도와 정치인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의미미분화법은 미국의 심리학자 찰스 오스굿이 고안한 것으로 개념의 의미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측정방법이 간단하고 도표화하기가 용이하고 이미지 추이를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극적 형용사로는 조사대상자의 주요 심리 국면을 기술하기 어렵고 조사대상자가 평가할 때 현혹효과가 작용할 수 있으며 중요한 속성들이 누락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④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

9가지 색상 중에서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을 두 가지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⑤ 인구 통계적 변인

인구 통계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를 조사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40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5년 9월 3일부터 10월 4일이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276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한 25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18명(45.2%), 여성이 138명(52.9%)이며,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145명(56.7%), 30대는 54명(21.3%), 40대는 57명(22.2%)이며,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37명(14.5%), 전문직이 47명(18.4%), 서비스직이 19명(7.4%), 학생이 103명(40.2%), 주부가 29명(11.3%), 무직이 3명(1.2%), 기타가 18명(7.0%)이며, 거주지는 서울이 176명(69.0%), 인천·경기도가 73명(27.3%), 그 외 지역이 7명(2.7%)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변인의 분포

인구통계적 변인	구분	n (%)
성별	남	118 (45.2)
	여	138 (52.9)
	계	256 (100.0)
연령	20 ~ 29세	145 (56.7)
	30 ~ 39세	54 (21.3)
	40 ~ 49세	57 (22.0)
	계	256 (100.0)
직업	사무직	37 (14.5)
	전문직	47 (18.4)
	서비스직	19 (7.4)
	학생	103 (42.0)
	주부	29 (11.3)
	무직	3 (1.2)
	기타	18 (7.0)
	계	256 (100.0)
거주지	서울	176 (69.0)
	인천, 경기도	73 (27.8)
	그 외 지역	7 (2.7)
	계	256 (100.0)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통계적 변인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색 선호도, 색 이미지 평가와 정치인 선호도, 정치인 이미지 평가는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 연령에 따른 색 선호도와 색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 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와 정치인 이미지의 평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색채 선호도와 색채 이미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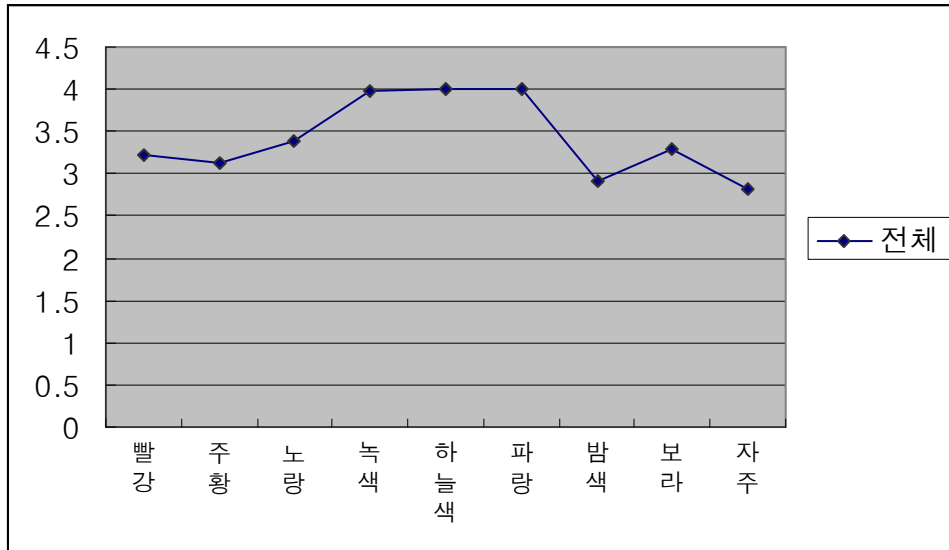
1) 색채 선호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의 결과는 표 5, 그래프 1, 2,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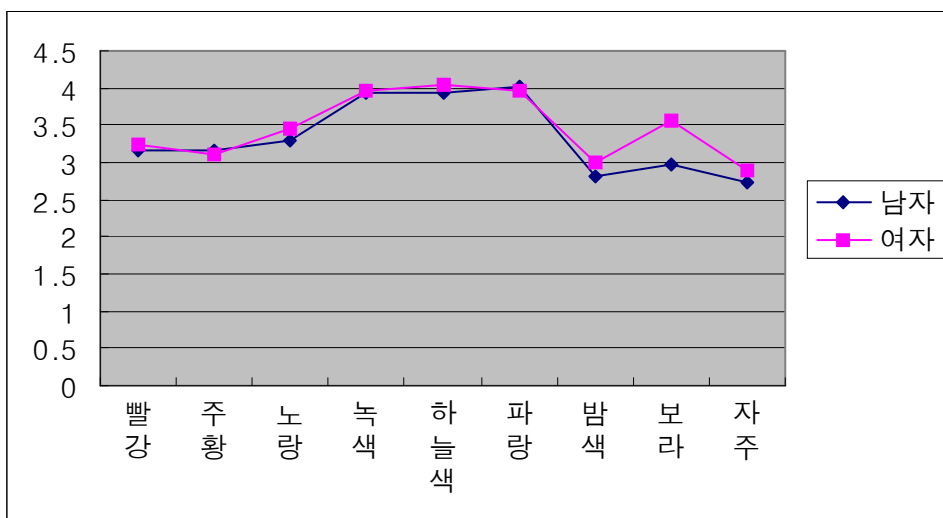
〈표 5〉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 차이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하늘색	파랑	밤색	보라	자주
전체	3.22	3.13	3.38	3.97	4.00	4.00	2.92	3.29	2.83
남자	3.17	3.15	3.29	3.95	3.95	4.03	2.82	2.96	2.74
여자	3.25	3.12	3.46	3.96	4.04	3.97	3.01	3.57	2.90
t값	-0.72	0.30	-1.52	-0.36	-0.84	0.52	-1.61	-4.54***	-1.51
20대	3.28	3.06	3.46	3.86^b	4.02	4.00	2.82^b	3.17	2.77
30대	3.22	3.30	3.22	4.02^{ab}	3.93	4.00	2.91^{ab}	3.33	2.83
40대	3.01	3.16	3.33	4.19^a	4.00	4.02	3.20^a	3.48	2.95
F값	1.64	1.68	1.44	3.62*	0.25	0.06	3.42*	1.66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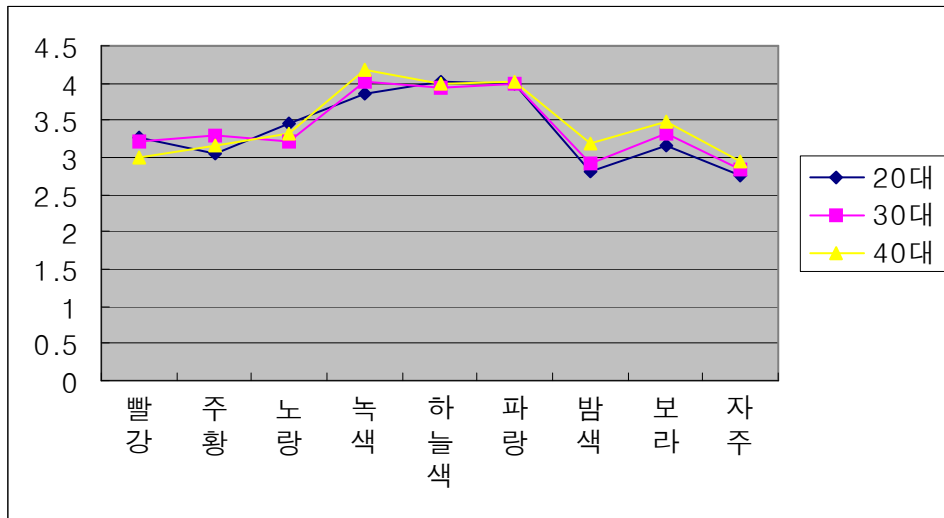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b)



<그래프 1> 색채 선호도의 평균



<그래프 2> 성별에 따른 색채 선호도의 차이



〈그래프 3〉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의 차이

표 5와 그래프 1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하늘색과 파랑이 4.00, 녹색이 3.97로 차가운 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색은 2.83, 밤색은 2.92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20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은 하늘색이 4.02이며, 그 다음이 파랑이 4.00, 녹색이 3.86의 순서였다. 30대는 녹색이 4.02, 파랑이 3.96, 하늘색이 3.9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40대는 녹색이 4.20, 파랑이 4.02, 하늘색이 4.0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색 선호도를 볼 때 보라색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2.96, 여자는 3.57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보라색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에 따른 색 선호도를 볼 때 녹색과 밤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녹색은 20대 3.86, 30대 4.02, 40대 3.62로 나타나, 30대가 20·40대 보다 더 녹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색은 20대 2.82, 30대 2.91, 40대 3.20

으로 나타나, 40대가 20·30대 보다 밤색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한(寒)색계통인 하늘색, 파랑색과 녹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국경, 인종, 종교를 막론하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파랑색이고(21세기 연구회, 2004: 57), 공동체 국가들을 상징하는 유럽 연합기의 바탕색이 파랑색인 점에서 볼 때 평화와 합일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파랑색은 세계 공통으로 사랑을 받는 색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서구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인의 절반 이상이 청색을 가장 선호하는 색으로 꼽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공통의 선호적 특성 때문에 청색의 민주화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다. 빨강과 노랑을 선호하는 어린 시절을 벗어나 지식과 전문성이 쌓여가는 성인이 되면서 점차 단파장의 색채를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청색 선호 경향은 서구화된 나라일수록 뚜렷하며 성인이 되면서 단파장의 파랑, 녹색을 점차 좋아하게 되는 색채 선호도의 변화는 사회적 일치감이 증대되고 지적 능력이 커가는 것을 암시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한국색채학회, 2002: 143).

또한 파랑색을 띠는 투명한 매개체인 공기와 물에 의하여 파랑은 맑음과 투명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가 파랑색의 선호 요인으로 꼽힐 수도 있다. 녹색은 숲, 초원, 식물 등의 엽록소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속에 필요한 에너지를 취하고 자연을 대변하는 색이다(리텔, 2004: 141). 따라서 녹색에 대한 선호는 자연에 대한 회귀본능과 같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선호하는 색으로 보라색이 있는데, 보라색은 빨강색과 파랑색의 극과 극의 이미지를 가진 신비로운 색이며 화려하고 우아하면서 환상적인 느낌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색이다. 여성들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움을 선호하는 여성의 기호에 맞게 남성들보다 보라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색 선호도에서 20대는 하늘색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하늘색은 약하고 여린 이미지와 함께 순수함의 이미지를 지닌 색이다. 또한 하늘색은 천상의 것, 신의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닿을 수 없는 꿈이나 환상, 현실 상실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20대는 현실보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비전 등이 원대한 시기이며 하늘색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0·40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은 녹색인데, 녹색은 희망, 발전, 성장의 의미와 함께 건강과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30·40대는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이며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책임이 따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녹색을 통해서 휴식과 마음을 진정시키고자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자연 친화적인 녹색이 주는 평온하면서 자연적인 이미지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40대에서 20·30대보다 밤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40대의 현실 지향적이고 보수적이고 온건과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땅의 색으로 현실 지향적이며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젊음 보다는 늙음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밤색과 잘 맞는다고 풀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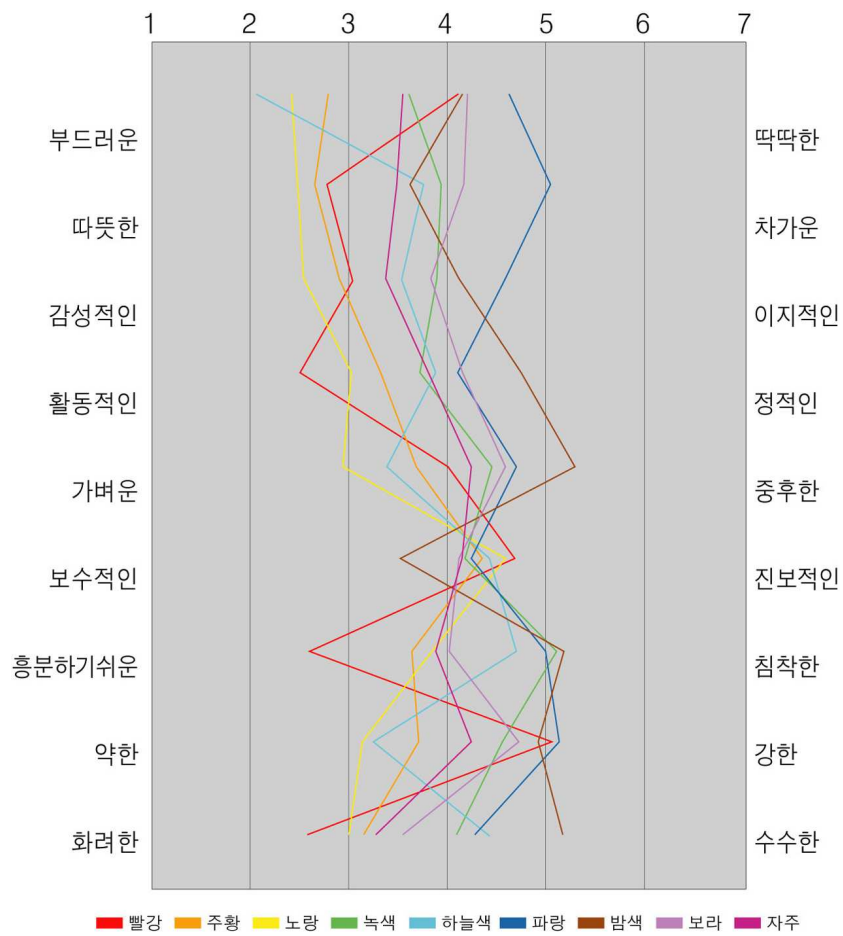
2) 색채 이미지 평가

색채 이미지 평가의 결과는 표 6과 그래프 4이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색 이미지 평가의 차이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6> 색채 이미지 평가의 평균값

(n=256)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하늘색	파랑	밤색	보라	자주
부드러운- 딱딱한	4.10	2.85	2.46	3.65	2.07	4.66	4.12	4.33	3.61
따뜻한- 차가운	2.84	2.74	2.50	3.97	3.85	5.05	3.64	4.34	3.50
감성적인- 이치적인	3.08	2.93	2.55	3.89	3.53	4.63	4.15	3.83	3.41
활동적인- 정적인	2.54	3.35	3.07	3.71	3.92	4.09	4.85	4.12	3.83
가벼운- 중후한	4.04	3.69	2.93	4.49	3.40	4.72	5.33	4.65	4.36
보수적인- 진보적인	4.76	4.35	4.70	4.19	4.47	4.22	3.51	4.18	4.20
흥분하기쉬운- 침착한	2.66	3.67	3.80	5.10	4.73	5.01	5.22	4.08	3.81
약한- 강한	5.07	3.77	3.11	4.59	3.32	5.07	4.96	4.68	4.32
화려한- 수수한	2.67	3.20	3.06	4.09	4.47	4.36	5.21	3.55	3.33



<그래프 4> 색채 이미지 평가의 평균

<표 7> 성별에 따른 색채 이미지 평가의 차이

남(n=118), 여(n=138)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하늘색	파랑	밤색	보라	자주
부드러운- 딱딱한	남	4.04	2.90	2.47	3.61	2.67	4.64	4.14	4.40	3.53
	여	4.14	2.78	2.43	3.69	2.67	4.71	4.10	4.28	3.69
	t값	-1.77	0.78	0.28	-0.45	0.02	-0.38	0.24	0.68	-0.98
따뜻한- 차가운	남	2.91	2.86	2.58	4.01	3.89	5.01	3.79	4.58	3.61
	여	2.80	2.64	2.41	3.94	3.82	5.09	3.52	4.12	3.40
	t값	0.56	1.36	1.05	0.40	0.33	-0.40	1.51	2.55*	1.23
감성적인- 이 지적인	남	3.09	2.99	2.71	3.90	3.60	4.42	4.07	3.75	3.27
	여	3.56	2.86	2.40	3.88	3.46	4.81	4.22	3.90	3.52
	t값	0.14	0.80	1.88	0.09	0.81	-2.09*	-0.86	-0.74	-1.49
활동적인- 정적인	남	2.58	3.53	3.28	3.68	3.89	3.97	4.75	4.02	3.75
	여	2.47	3.18	2.86	3.74	3.42	4.18	4.94	4.20	3.90
	t값	0.56	2.10*	2.31*	-0.38	-0.79	-1.03	-1.23	-1.07	-0.98
가벼운- 중후한	남	4.14	3.67	2.92	4.47	3.38	4.62	5.23	4.58	4.28
	여	3.96	3.71	2.91	4.51	3.42	4.81	5.41	4.71	4.43
	t값	1.24	-0.31	0.02	-0.29	-0.21	-1.30	-1.22	-0.86	-1.12
보수적인- 진보적인	남	4.90	4.31	4.76	4.06	4.51	4.12	3.54	4.31	4.23
	여	4.65	4.41	4.65	4.31	4.44	4.31	3.47	4.06	4.18
	t값	1.17	-0.60	0.69	-1.49	0.49	-0.94	0.32	1.42	0.29
흥분하기 쉬운- 침착한	남	2.90	3.79	4.06	5.08	4.68	4.90	4.99	3.90	3.68
	여	2.46	3.55	3.56	5.17	4.76	5.10	5.42	4.23	3.92
	t값	1.88	1.55	2.71*	-0.24	-0.50	1.24	-2.73*	-1.83	-1.42
약한- 강한	남	5.50	3.85	3.21	4.47	3.53	4.97	4.92	4.48	4.15
	여	5.62	3.72	3.03	4.69	3.15	5.17	4.99	4.85	4.46
	t값	-0.65	0.93	1.13	-1.55	2.39*	-1.31	-0.41	-2.27*	-2.14*
화려한- 수수한	남	2.95	3.38	3.15	4.67	4.36	4.32	5.10	3.61	3.47
	여	2.45	3.03	3.00	4.72	4.56	4.40	5.29	3.50	3.20
	t값	2.16*	2.02**	0.85	-0.31	-1.27	-0.46	-1.13	0.51	1.51

*p < .05, **p < .01, ***p < .001

<표 8> 연령에 따른 색채 이미지 평가의 차이

20대 (n=145), 30대(n=54), 40대(n=57)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하늘색	파랑	밤색	보라	자주
부드러운 - 딱딱한	20대	4.19	2.93	2.44	3.54	2.56	4.56	3.97	4.55^a	3.74
	30대	4.13	2.92	2.57	3.81	2.86	4.68	4.10	4.00^b	3.53
	40대	3.82	2.54	2.39	3.79	3.77	4.96	4.74	4.18^{ab}	3.36
	F값	1.57	2.38	0.31	1.15	1.06	1.89	1.84	3.54[*]	1.90
따뜻한- 차가운	20대	2.89	2.90^a	2.42	3.75^b	3.67	4.94^b	3.54	4.41	3.63
	30대	2.77	2.71^{ab}	2.64	4.28^a	3.94	4.77^b	3.63	4.13	3.42
	40대	2.89	2.36^b	2.50	4.24^a	4.20	5.59^a	3.88	4.30	3.16
	F값	0.09	3.57[*]	0.52	4.45[*]	2.55	4.63[*]	1.15	0.73	2.58
감성적인 - 이지적인	20대	3.18	3.01	2.40^b	3.84	3.35	4.50	4.07	3.84	3.48
	30대	3.02	3.02	2.91^a	3.77	3.69	4.70	4.00	3.55	3.40
	40대	2.88	2.64	2.50^{ab}	4.14	3.77	4.88	4.45	4.04	3.23
	F값	0.76	1.75	2.91[*]	1.23	2.25	1.39	1.88	1.28	0.74
활동적인 - 정적인	20대	2.50	3.19	3.00	3.51^b	3.85	4.19	4.95	4.35^a	4.00
	30대	1.49	3.56	3.29	3.81^{ab}	3.77	3.72	4.81	3.67^b	3.58
	40대	2.61	3.54	2.98	4.15^a	4.21	4.14	4.62	3.93^{ab}	3.58
	F값	0.11	2.21	0.83	4.64[*]	1.71	1.73	1.41	5.73[*]	3.43
가벼운- 중후한	20대	3.99	3.66	2.86	4.49	3.43	4.87^a	5.43	4.68	4.39
	30대	4.06	3.60	3.06	4.54	3.38	4.42^b	5.12	4.52	4.45
	40대	4.14	3.84	2.87	4.45	3.34	4.64^{ab}	5.25	4.71	4.21
	F값	0.38	0.69	0.41	0.09	0.11	3.11^{**}	1.43	0.44	0.63
보수적인 - 진보적인	20대	4.66	4.35	4.69	4.20	4.60	4.24	3.44	4.19	4.15
	30대	4.85	4.40	4.47	4.22	4.31	4.25	3.64	4.02	4.26
	40대	4.91	4.36	4.96	4.16	4.27	4.14	3.50	4.25	4.25
	F값	0.56	0.03	1.88	0.02	2.30	0.09	0.27	0.39	0.21
홍분하기 쉬운- 침착한	20대	2.38^b	3.59	3.89^a	5.13	4.84	5.10	5.22	4.08	3.81
	30대	3.35^a	3.60	3.96^a	4.92	4.69	4.74	5.12	4.00	3.75
	40대	2.73^b	3.86	3.35^b	5.18	4.48	5.00	5.29	4.13	3.84
	F값	5.57^{**}	0.98	3.27[*]	0.64	1.68	1.52	0.25	0.11	0.06
약한- 강한	20대	5.58	3.76	3.06^b	4.68	3.28	5.11	5.01^{ab}	4.69	4.27
	30대	5.42	3.55	2.79^b	4.36	3.17	4.85	4.65^b	4.60	4.35
	40대	5.63	4.04	3.52^a	4.59	3.54	5.20	5.11^a	4.75	4.23
	F값	0.37	2.33	4.73[*]	1.29	1.23	1.22	2.32[*]	0.18	0.40
화려한- 수수한	20대	2.53	3.11	3.17	4.69	4.52	4.37	5.27	3.66	3.29
	30대	3.12	3.32	3.11	4.56	4.40	4.23	5.12	3.19	3.26
	40대	2.61	3.25	2.73	4.80	4.45	4.45	5.09	3.64	3.47
	F값	1.98	0.56	1.97	0.59	0.22	0.36	0.49	1.61	0.35

*p < .05, **p < .01, ***p < .0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b)

(1) 빨강

표 6과 그래프 4에서 빨강색은 ‘따뜻한 - 차가운’ 이 2.84, ‘활동적인 - 정적인’ 이 2.54,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 이 2.66, ‘화려한 - 수수한’ 이 2.67, ‘약한 - 강한’ 이 5.57, ‘보수적인 - 진보적인’ 이 4.7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빨강색은 따뜻하고, 활동적이며, 흥분하기 쉽고, 화려하고 강하고 다소 진보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빨강색의 이미지 평가는 ‘화려한 - 수수한’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2.95 여자는 2.45로 여자가 남자보다 빨강색을 더 화려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연령별 차이는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2.38, 30대는 3.35, 40대는 2.73으로 20대와 40대가 30대 보다 더 빨강색을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주황

표 6과 그래프 4에서 주황색은 ‘부드러운 - 딱딱한’ 이 2.85, ‘따뜻한 - 차가운’ 이 2.74, ‘감성적인 - 이지적인’ 이 2.93, ‘화려한 - 수수한’ 이 3.20, ‘활동적인 - 정적인’ 이 3.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황색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며 화려하며 활동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주황색의 이미지 평가는 ‘활동적인 - 정적인’ 과 ‘화려한 - 수수한’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활동적인 - 정적인’ 에서 남자는 3.53, 여자는 3.18로 나타났고, ‘화려한 - 수수한’ 은 남자가 3.38, 여자가 3.0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주황색을 더 활동적이고 화

려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에서 연령별 차이는 ‘따뜻한- 차가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대가 2.90, 30대가 2.71, 40대가 2.3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40대가 주황색을 20대보다 더 따뜻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노랑

표 6과 그래프 4에서 노랑색은 ‘부드러운 - 딱딱한’이 2.46, ‘따뜻한 - 차가운’이 2.50, ‘감성적인 - 이지적인’이 2.55, ‘가벼운 - 중후한’이 2.93, ‘활동적인 - 정적인’이 3.07, ‘약한 - 강한’이 3.11, ‘화려한 - 수수한’이 3.06, ‘보수적인 - 진보적인’이 4.7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랑색은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며 가볍고 활동적인 이미지와 약하고 화려하며 진보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노랑색의 이미지 평가는 ‘활동적인 - 정적인’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활동적인 -정적인’에서 남자가 3.28, 여자가 2.86으로 나타났고,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서 남자가 4.06, 여자가 3.56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노랑색을 더 활동적이고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에서 연령별에 따른 노랑색의 이미지 평가는 ‘감성적인 -이지적인’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 ‘약한 - 강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성적인 - 이지적인’에서 20대는 2.40, 30대는 2.91, 40대는 2.50으로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은 20대는 3.89, 30대는 3.96, 40대는 3.35로 ‘약한 - 강한’에서 20대는 3.06, 30대는 2.79, 40대는 3.52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와 30대는 노랑색을 40대 보다 더 감성적이고 약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40대는 20·30대 보다 노랑색을 더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녹색

표 6과 그래프 4에서 녹색은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 이 5.10, ‘화려한 - 수수한’ 이 4.69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색은 침착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녹색의 이미지 평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8에서 연령별에 따른 녹색의 이미지 평가는 ‘따뜻한 - 차가운’ ‘활동적인 - 정적인’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뜻한 - 차가운’ 에서 20대는 3.75, 30대는 4.28, 40대는 4.24로 나타났고, ‘활동적인 - 정적인’ 에서 20대는 3.51, 30대는 3.81, 40대는 4.15로 나타났다. 따라서 30·40대는 녹색을 20대 보다 차가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하늘색

표 6과 그래프 4에서 하늘색은 ‘부드러운 - 딱딱한’ 이 2.07, ‘약한 - 강한’ 이 3.32,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 이 4.73으로 나타났다. 하늘색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약하고 침착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하늘색의 이미지 평가는 ‘약한 - 강한’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약한 - 강한’ 에서 남자가 3.53, 여자가 3.15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늘색을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약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에서 연령별에 따른 하늘색의 이미지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파랑색

표 6과 그래프 4에서 파랑색은 ‘따뜻한 - 차가운’이 5.05, ‘약한 - 강한’이 5.07,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이 5.01, ‘가벼운 - 중후한’이 4.72, ‘부드러운 - 딱딱한’이 4.6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랑색은 차갑고 강하며 침착한 이미지와 다소 중후하고 딱딱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파랑색의 이미지 평가는 ‘감성적인 - 이지적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성적인 - 이지적인’에서 남자가 4.42, 여자가 4.81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지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에서 연령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는 ‘따뜻한 - 차가운’ ‘가벼운 - 중후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뜻한 - 차가운’에서 20대 4.94, 30대 4.77, 40대가 5.59로 나타났으며 ‘가벼운 - 중후한’에서 20대는 4.87, 30대는 4.42, 40대는 4.64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파랑색은 40대가 20·30대 보다 더 차가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20대는 30·40대 보다 더 중후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밤색

표 6과 그래프 4에서 밤색은 ‘가벼운 - 중후한’이 5.33,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이 5.22, ‘화려한 - 수수한’이 5.21, ‘약한 - 강한’이 4.96, ‘보수적인 - 진보적인’이 3.51로 나타났다. 따라서 밤색은 중후하며 침착하고 수수하며 강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밤색의 이미지 평가는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서 남자는 4.99, 여자는 5.42로 나타났다. 따라서 밤색이 여성들에게는 남성보다 침착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에서 연령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는 ‘약한 - 강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약한 - 강한’에서 20대가 5.01, 30대가 4.65, 40대가 5.11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가 밤색을 30대 보다 더 강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보라

표 6과 그래프 4에서 보라색은 ‘화려한 - 수수한’이 3.55, ‘약한 - 강한’이 4.68, ‘가벼운 - 중후한’이 4.65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라색은 대체로 화려하며 강하고 중후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섞여진 색으로 딱딱하고 강하며 중후하면서 한편으로 화려한 양면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보라색의 이미지 평가는 ‘따뜻한 - 차가운’ ‘약한 - 강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뜻한 - 차가운’에서 남자가 4.58, 여자가 4.12로 나타났고, ‘약한 - 강한’에서 남자가 4.48, 여자가 4.85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라색은 남성이 더 차가운 이미지로 여성은 더 강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에서 연령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는 ‘부드러운 - 딱딱한’ ‘활동적인 - 정적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드러운 - 딱딱한’에서 20대는 4.55, 30대는 4.00, 40대는 4.18로 나타났고, ‘활동적인 - 정적인’에서 20대가 4.35, 30대가 3.67, 40대가 3.9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는 보라색을 30·40대보다 더 딱딱하고 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 자주

표 6과 그래프 4에서 자주색은 ‘감성적인 - 이지적인’ 이 3.41, ‘화려한 - 수수한’ 이 3.33, ‘따뜻한 - 차가운’ 이 3.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주색은 감성적이고 화려하며 따뜻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자주색의 이미지 평가는 ‘약한 - 강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약한 - 강한’에서 남자가 4.15, 여자가 4.4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주색은 여성이 남성 보다 더 강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에서 연령별에 따른 자주색의 이미지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색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색이 주는 메시지를 잘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색에 대한 경험이 남성에 비해 풍부한 환경적 요인, 즉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멋 부리는 기회가 많아 자신을 꾸미는 것이 생활화된 여성들의 색에 대한 감각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색이 감성·감각의 언어임을 감안할 때 감성에 민감한 여성이 색에 대한 감성도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치인 선호도와 정치인 이미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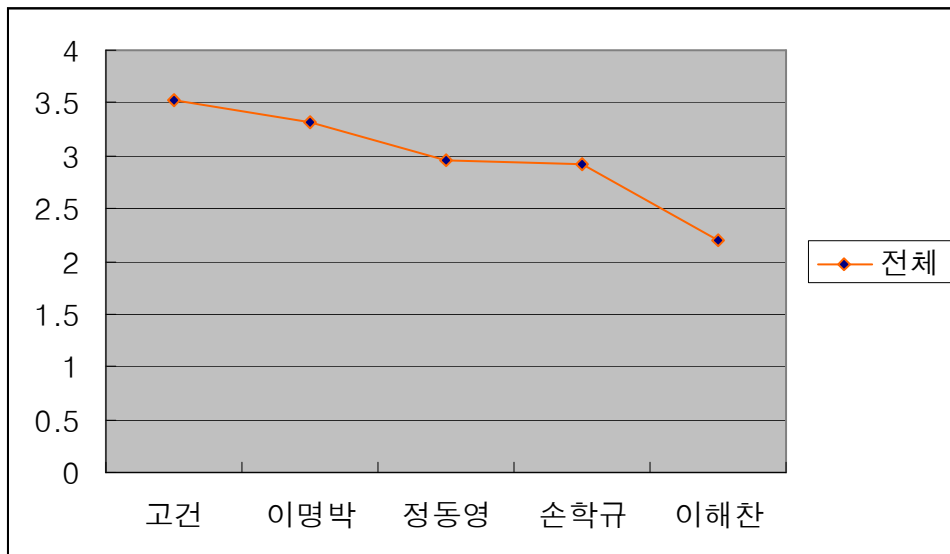
1) 정치인 선호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그래프 5, 6,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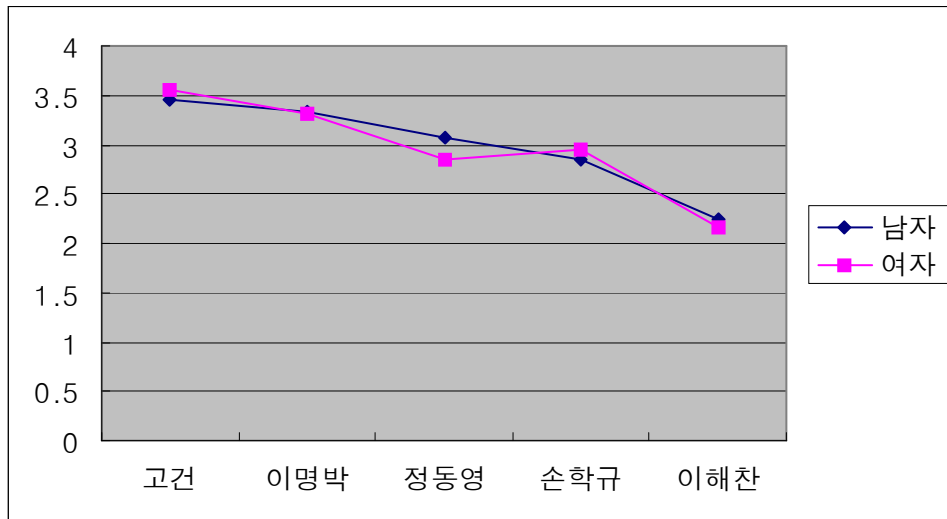
<표 9>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의 차이

	고건	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전체	3.52	3.32	2.95	2.91	2.20
남자	3.45	3.33	3.07	2.85	2.24
여자	3.56	3.31	2.85	2.94	2.17
t값	-0.42	0.12	1.87	-0.98	0.55
20대	3.29^b	3.18^b	3.11^a	2.92	2.26
30대	3.43^b	3.17^b	2.81^{ab}	2.78	2.30
40대	4.14^a	3.80^a	2.66^b	2.96	1.98
F값	3.27[*]	7.58^{***}	5.40^{**}	1.12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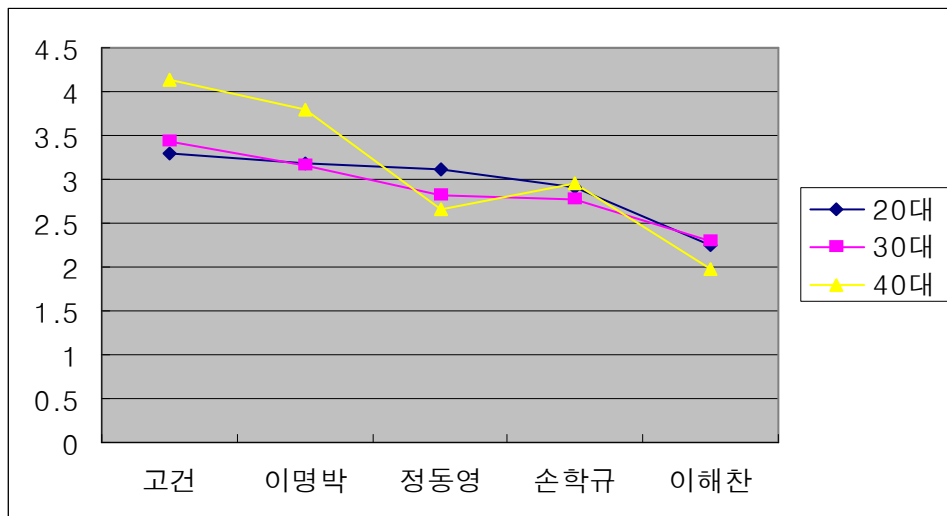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b)



<그래프 5> 정치인의 선호도 평균



<그래프 6> 성별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



<그래프 7> 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

표 9와 그래프 5에서 정치인 선호도를 볼 때 전체적으로는 고건이 3.52, 이명박이 3.32, 정동영이 2.95, 손학규가 2.91, 이해찬이 2.20의 순으로 나타나 고건과 이명박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9와 그래프 6에서 성별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의 차이를 보면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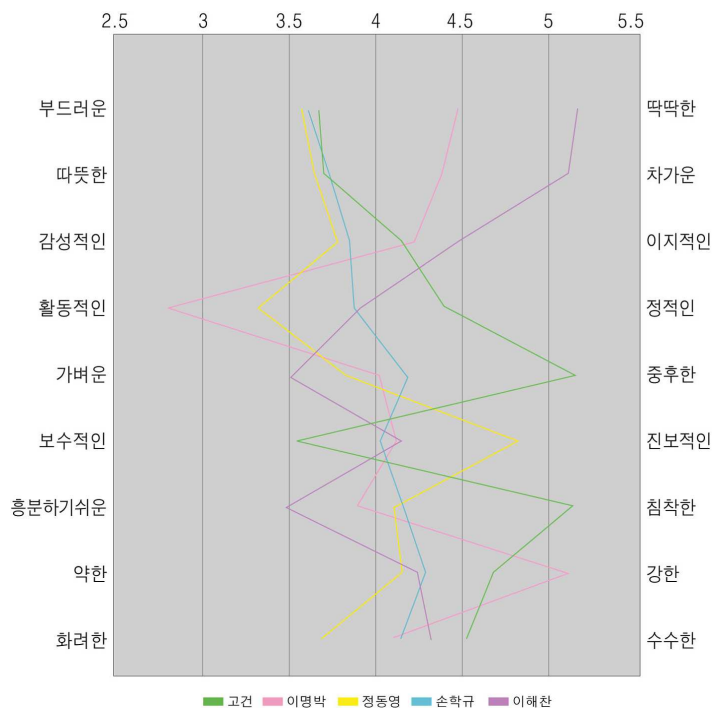
표 9와 그래프 7에서 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는 고건, 이명박, 정동영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20대는 고건이 3.29, 이명박이 3.18, 정동영이 3.11, 손학규가 2.96, 이해찬이 2.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에는 고건이 3.43, 이명박이 3.17, 정동영이 2.81, 손학규가 2.78, 이해찬이 2.30으로 나타났다. 40대는 고건이 4.14, 이명박이 3.80, 손학규가 2.96, 정동영이 2.66, 이해찬이 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건과 이명박은 40대 연령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가장 높았고, 정동영은 20대 연령 집단에서 선호도가 높았고, 40대 연령 집단에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정치인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정치인 이미지 평가

정치인 이미지 평가에 대한 결과는 표 10, 그래프 8이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색 이미지 평가의 차이는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0> 정치인 이미지 평가의 평균

	고건	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부드러운- 딱딱한	3.71	4.49	3.56	3.58	5.28
따뜻한- 차가운	3.74	4.43	3.63	3.75	5.25
감성적인- 이지적인	4.28	4.36	3.72	3.83	4.45
활동적인- 정적인	4.40	2.86	3.39	3.87	3.90
가벼운- 중후한	5.19	4.04	3.87	4.21	3.51
보수적인- 진보적인	3.56	4.26	4.80	4.07	4.29
흥분하기 쉬운- 침착한	5.13	3.90	4.10	4.24	3.35
약한- 강한	4.75	5.15	4.15	4.33	4.32
화려한- 수수한	4.57	4.10	3.69	4.11	4.38



<그래프 8> 정치인의 이미지 평가의 평균

<표 11> 성별에 따른 정치인 이미지 평가

남(n=118), 여(n=138)

		고건	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부드러운- 딱딱한	남	3.49	4.53	3.34	3.70	5.44
	여	3.89	4.45	3.73	3.46	5.14
	t값	-2.22*	0.41	-2.14*	1.51	1.70
따뜻한- 차가운	남	3.45	4.44	3.43	3.74	5.34
	여	4.00	4.42	3.80	3.74	5.17
	t값	-3.37*	0.12	-2.07*	0.02	0.95
감성적인- 이치적인	남	4.09	4.39	3.59	3.82	4.41
	여	4.47	4.32	3.81	3.86	4.47
	t값	-2.33**	0.39	-1.20	-0.26	-0.35
활동적인- 정적인	남	4.21	2.76	3.36	3.76	4.07
	여	4.56	2.95	3.43	3.94	3.76
	t값	-2.24*	-0.85	-0.45	-1.17	1.79
가벼운- 중후한	남	5.27	4.05	3.99	4.23	3.51
	여	5.19	4.02	3.76	4.19	3.53
	t값	0.22	1.87	1.30	0.31	-0.08
보수적인- 진보적인	남	3.62	3.93	4.94	3.95	4.36
	여	3.53	4.54	4.68	4.19	4.24
	t값	0.48	-2.87**	1.67	-1.58	0.55
흥분하기 쉬운- 침착한	남	5.21	3.81	4.29	4.23	3.50
	여	5.07	4.00	3.93	4.24	3.23
	t값	0.78	-1.02	2.00*	-0.04	1.30
약한- 강한	남	4.79	5.33	4.18	4.11	4.10
	여	4.72	4.99	4.11	4.54	4.32
	t값	4.98	1.91	0.40	-1.22	-1.09
화려한- 수수한	남	4.57	4.09	3.81	4.13	4.48
	여	4.57	4.10	3.59	4.09	4.27
	t값	0.12	-0.02	1.34	0.30	0.21

*p < .05, **p < .01, ***p < .001

<표 12> 연령에 따른 정치인 이미지 평가

20대(n=145), 30대(n=54), 40대(n=57)

		고건	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부드러운- 딱딱한	20대	4.05^a	4.35	3.24^b	3.60	5.01^b
	30대	3.58^b	4.66	3.98^a	3.68	5.57^a
	40대	2.91^c	4.62	3.96^a	3.38	5.69^a
	F값	13.72[*]	1.31	7.81^{**}	0.88	6.10^{**}
따뜻한- 차가운	20대	4.04^a	4.40	3.47^b	3.83	5.12
	30대	3.51^b	4.60	3.62^{ab}	3.70	5.15
	40대	3.25^b	4.26	4.07^a	3.53	5.63
	F값	8.67[*]	0.83	3.82[*]	1.38	2.76
감성적인- 이 지적인	20대	4.49^a	4.42	3.67	3.93	4.31
	30대	4.32^a	4.08	3.83	3.58	4.72
	40대	3.80^b	4.44	3.71	3.82	4.48
	F값	6.04[*]	1.37	0.23	1.83	1.61
활동적인- 정적인	20대	4.48^a	3.07^a	3.48	3.94	4.02^a
	30대	4.55^a	2.87^{ab}	3.33	3.81	4.15^a
	40대	4.02^b	2.36^b	3.27	3.69	3.35^b
	F값	3.10[*]	3.19[*]	0.55	0.86	6.21^{**}
가벼운- 중후한	20대	5.09	4.09	4.19^a	4.38^a	3.69^a
	30대	5.28	3.87	3.42^b	3.77^b	3.62^a
	40대	5.40	4.04	3.50^b	4.22^a	3.00^b
	F값	1.12	0.63	8.68^{***}	6.47^{**}	4.28[*]
보수적인- 진보적인	20대	3.76^a	4.45^a	4.83	4.10	3.99^b
	30대	3.61^a	3.62^b	4.71	3.85	4.53^{ab}
	40대	2.93^b	4.31^a	4.81	4.22	4.87^a
	F값	6.59^{**}	4.81^{**}	0.18	1.37	6.56^{**}
홍분하기 쉬운- 침착한	20대	4.99^b	3.81^b	4.32^a	4.26	3.42
	30대	5.06^b	3.72^b	3.81^b	3.98	3.25
	40대	5.54^a	4.33^a	3.76^b	4.42	3.33
	F값	3.44^{**}	2.89[*]	4.13[*]	2.20	0.23
약한- 강한	20대	4.73	4.94^b	4.34^a	4.16	3.99^b
	30대	4.68	5.26^{ab}	3.92^{ab}	4.08	4.38^{ab}
	40대	4.85	5.57^a	3.82^b	5.00	4.84^a
	F값	0.31	4.32[*]	4.29[*]	2.11	8.29^{***}
화려한- 수수한	20대	4.59^a	3.91^b	3.85	4.07	4.18^b
	30대	4.23^b	4.09^b	3.51	4.19	4.45^{ab}
	40대	4.89^a	4.53^a	3.47	4.05	4.76^a
	F값	3.90[*]	4.91^{**}	2.43	0.27	4.17[*]

*p < .05, **p < .01, ***p < .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b>c)

(1) 고 건

표 20과 그래프 9에서 고건에 대한 이미지 평가는 ‘가벼운 - 중후한’이 5.19,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이 5.13, ‘약한 - 강한’이 4.75, ‘보수적인 - 진보적인’이 3.56으로 나타나 중후하며 침착하며 강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고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으로 대통령 공백 기간 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보여준 침착하며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국정을 무리 없이 이끈 것이 고건의 이미지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관료로서의 보수적인 이미지와 큰 키와 준수한 외모에서 풍기는 중후한 이미지로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에서 성별에 따른 고건의 이미지 평가는 ‘부드러운 - 딱딱한’, ‘따뜻한 - 차가운’, ‘감성적인 - 이지적인’, ‘활동적인 - 정적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드러운 - 딱딱한’에서 남자는 3.49, 여자는 3.89, ‘따뜻한 - 차가운’에서 남자 3.45, 여자 4.00, ‘감성적인 - 이지적인’에서 남자 4.09, 여자 4.47, ‘활동적인 - 정적인’에서 남자 4.21, 여자 4.56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점수가 더 높았다. 따라서 고건에 대하여 남성들은 여성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고건에 대하여 남성보다 차갑고 이지적이며 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2에서 연령별에 따른 고건의 이미지 평가는 ‘부드러운 - 딱딱한’, ‘따뜻한 - 차가운’, ‘감성적인 - 이지적인’, ‘활동적인 - 정적인’, ‘보수적인 - 진보적인’,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 ‘화려한 - 수수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드러운 - 딱딱한’에서는 20대 4.05, 30대 3.58, 40

대 2.91로, ‘따뜻한 - 차가운’에서 20대 4.04, 30대 3.51, 40대 3.25로, ‘감성적인 - 이지적인’에서 20대 4.49, 30대 4.32, 40대 3.80으로, ‘활동적인 - 정적인’에서 20대 4.48, 30대 4.55, 40대 4.02로, ‘보수적인 - 진보적인’에서 20대 3.76, 30대 3.61, 40대 2.93으로,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서 20대 4.99, 30대 5.06, 40대 5.54로, ‘화려한 - 수수한’에서 20대 4.59, 30대 4.23, 40대 4.89로 나타나, 20대는 다른 연령대 보다 고건에 대하여 딱딱하고 차갑고 이지적이고 정적이며 보수적이고 흥분하기 쉽고 화려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40대는 다른 연령대 보다 고건에 대하여 부드럽고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활동적이고 보수적이고 침착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이명박

표 10과 그래프 8에서 이명박에 대한 이미지 평가는 ‘활동적인 - 정적인’이 2.86, ‘약한 -강한’이 5.15, ‘부드러운 - 딱딱한’이 4.49로 나타나 이명박은 강하며 활동적이고 다소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명박은 현재 서울시장으로 청계천 복개 사업과 서울시내 버스전용차선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이러한 행보가 이명박의 이미지에서 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내고, 사원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직에 오르기까지 입지전적인 경력들이 진보적이면서 강한 이미지로 굳혀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11에서 성별에 따른 이명박의 이미지 평가는 ‘보수적인 - 진보적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3.93, 여자는 4.54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명박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진보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2에서 연령별에 따른 이명박의 이미지 평가는 ‘활동적인 - 정적인’, ‘보수적인 - 진보적인’, ‘홍분하기 쉬운 - 침착한’, ‘약한 - 강한’, ‘화려한 - 수수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활동적인- 정적인’에서 20대 3.07, 30대 2.87, 40대 2.36으로 40대가 가장 활동적으로 평가하였고, ‘보수적인 - 진보적인’에서 20대 4.45, 30대 3.62, 40대 4.31로 20대가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하였고, ‘홍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서 20대 3.81, 30대 3.72, 40대 4.33으로 20대가 가장 홍분하기 쉬운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약한 - 강한’에서 20대 4.94, 30대 5.26, 40대 5.57로 40대가 가장 강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화려한 - 수수한’에서 20대 3.91, 30대 4.09, 40대 4.53으로 40대가 가장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3) 정동영

표 10과 그래프 8에서 정동영에 대한 이미지 평가는 ‘부드러운 - 딱딱한’이 3.56, ‘활동적인 - 정적인’이 3.39, ‘보수적인 - 진보적인’이 4.80, ‘화려한 - 수수한’이 3.69로 나타나 정동영은 대체로 진보적이고 활동적이며 부드럽고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정동영은 방송 앵커맨 출신으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민주당 대변인으로 40개월 동안 대변인을 맡을 정도로 정동영의 언변은 무리가 없으며 대외적인 이미지는 부드러우며 세련되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정동영을 화려하고 진보적이며 부드럽고 화려한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에서 성별에 따른 정동영의 이미지 평가는 ‘부드러운 - 딱딱한’, ‘따뜻한 - 차가운’, ‘홍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드러운 - 딱딱한’에서 남자 3.34, 여자 3.73, ‘따뜻한 - 차가운’에서 남자 3.43, 여자 3.80,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서 남자 4.29, 여자 3.9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동영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침착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2에서 연령별에 따른 정동영의 이미지 평가는 ‘부드러운 - 딱딱한’, ‘따뜻한 - 차가운’, ‘가벼운 - 중후한’,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 ‘약한 - 강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드러운 - 딱딱한’에서 20대 3.24, 30대 3.98, 40대 3.96, ‘따뜻한 - 차가운’에서 20대 3.47, 30대 3.62, 40대 4.07, ‘가벼운 - 중후한’에서 20대 4.19, 30대 3.42, 40대 3.50,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에서 20대 4.32, 30대 3.81, 40대 3.76, ‘약한 - 강한’에서 20대 4.34, 30대 3.92, 40대 3.82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동영에 대하여 20대는 3·40대 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중후하며 침착하고 강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30·40대는 20대보다 정동영을 가볍고 흥분하기 쉬우며 약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손학규

표 10과 그래프 8에서 손학규에 대한 이미지 평가는 ‘부드러운 - 딱딱한’이 3.58,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이 4.24로 나타나, 평균값이 3.58에서 4.33으로 전반적으로 그다지 특징적인 이미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학규는 운동권 출신이면서 정치학 박사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다. 현재 경기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어필하는 면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중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의 손학규의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에서 성별에 따른 손학규의 이미지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서 연령별에 따른 손학규의 이미지 평가는 ‘가벼운 - 중후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벼운 - 중후한’에서 20대 4.38, 30대 3.77, 40대 4.22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학규에 대하여 30대는 20·40대보다 가벼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이해찬

표 10과 그래프 8에서 이해찬에 대한 이미지 평가는 ‘부드러운 - 딱딱한’이 5.28, ‘따뜻한 - 차가운’이 5.25, ‘흥분하기 쉬운 - 침착한’이 3.35로 나타나 딱딱하고 차가우며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해찬은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 언행들로 인해 이해찬을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호도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이해찬의 이미지는 다른 정치인보다 강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학규와 이해찬은 선호도에 있어서 똑같이 낮은 선호를 보였지만 손학규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반면에 이해찬은 정치인의 색깔로서는 분명한 자신의 이미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에서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부드러운 - 딱딱한’, ‘활동적인 - 정적인’, ‘가벼운 - 중후한’, ‘보수적인 - 진보적인’, ‘화려한 - 수수한’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부드러운 - 딱딱한’은 20대 5.01, 30대 5.57, 40대 5.69, ‘활동적인 - 정적인’에서 20대 4.02, 30대 4.15, 40대 3.35, ‘가벼운 - 중후한’에서는 20대 3.69, 30대 3.62, 40대 3.00, ‘보수적인 - 진보적인’에서는 20대 3.99, 30대 4.53, 40대 4.87, ‘약한 - 강한’에서 20대 3.99, 30대 4.38, 40대 4.84, ‘화려한 - 수수한’에서는 20대 4.18, 30대 4.45, 40대 4.7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해찬은 40대가 2·30대보다 더 딱딱하고 활동적

이며 가볍고 진보적이며 강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여자보다 남자가, 20대 보다 40대가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3.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

색채심리와 관계되어 사람의 특성을 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을 복수 응답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

n(%)

색 상	고 건 (n=256)	이명박 (n=255)	정동영 (n=254)	손학규 (n=248)	이해찬 (n=254)
빨강	20 (7.9)	104 (51.0)	43 (17.0)	24 (9.9)	95 (37.4)
주황	27 (10.7)	47 (19.5)	58 (23.2)	47 (19.5)	53 (22.1)
노랑	35 (14.2)	57 (24.1)	96 (40.5)	38 (16.0)	52 (21.9)
녹색	117 (46.3)	59 (14.7)	59 (24.3)	72 (30.0)	33 (14.0)
하늘색	63 (27.5)	38 (15.7)	52 (22.4)	82 (35.6)	32 (9.5)
파랑	75 (32.3)	100 (42.5)	70 (30.3)	78 (35.2)	36 (15.2)
밤색	97 (41.6)	28 (12.2)	37 (16.3)	49 (22.1)	60 (25.9)
보라	20 (7.7)	25 (11.1)	42 (18.6)	46 (21.0)	49 (21.5)
자주	26 (11.6)	16 (7.3)	16 (7.2)	23 (10.7)	70 (32.2)

(1) 고 건

표 13에서 고건과 연상되는 색으로 녹색이 117명 46.3%, 밤색이 97명 41.6%로 나타났다. 녹색은 수수하고 침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밤색은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이미지의 색이다.

고건은 이미지 평가에서 침착하고 중후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처신과 최근 대통령 권한 대행시 보여준 침착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에서 녹색의 침착한 이미지를 연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수적인 이미지와 중후한 이미지의 밤색을 떠올린 것은 고건의 연륜과 외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2) 이명박

표 13에서 이명박과 연상되는 색으로 빨강이 104명 51.0%, 파랑이 100명 42.5%로 나타났다. 빨강색은 강하고 활동적이며 화려하고 진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파랑색은 차갑고 냉정하며 침착하며 이지적인 이미지와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의 이미지는 강하고 활동적이고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와 약간의 진보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활동적이고 강하고 진보적인 이미지의 빨강색과 강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파랑색으로 이명박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은 일을 만들고 추진하는 능력이 여타 정치인과 구별될 정도로 활동성이 뛰어난 정치인이다. 그에게서 빨강색을 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파랑색 역시 빨강색과 대비되는 색이나 빨강색의 의미만큼 강하고 차갑고 냉정한 색이다. 따라서 차갑고 활동적인 이미지로서 빨강색과 파랑색의 연상

은 대중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정치인임을 알 수 있다.

(3) 정동영

표 13에서 정동영과 연상되는 색으로 노랑이 96명 40.5%, 파랑이 70명 30.3%로 나타났다. 노랑색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고 약하며 진보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파랑색은 차갑고 차분하며 젊은 이미지의 색이다. 정동영의 이미지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활동적이며 화려하고 진보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랑색의 이미지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 정동영은 타 정치인에 비해 젊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화려한 이미지와 진보적인 이미지가 그것을 나타내 준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외모와 세련된 패션 감각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젊은 이미지에서 파랑색을 연상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손학규

표 13에서 손학규와 연상되는 색으로 하늘색이 82명 35.6%, 파랑이 78명 35.2%로 나타났다. 하늘색은 순수와 희망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파랑색은 차갑고 이지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손학규의 이미지 평가 결과 부드럽고 차분하지만 크게 부각되는 이미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늘색의 깨끗하고 연하며 약한 이미지가 손학규에게서 아직까지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늘색을 연상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손학규는 과거 운동권시절을 겪었음에도 비교적 평탄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엘리트 정치인답게 지성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데 손학규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지적인 이미지가 하늘색과 파랑색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 이해찬

표 13에서 이해찬과 연상되는 색으로 빨강이 95명 37.4%, 자주색이 70명 30.0%로 나타났다. 빨강색은 강하고 진보적이며 화려하고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자주색은 빨강색의 속성보다 품격이 있으나 어둡고 음모적인 이미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해찬의 이미지는 강하고 딱딱하고 흥분하기 쉬우며 가볍고 진보적이며 수수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데 빨강색에서 강하고 흥분하기 쉬우며 진보적인 이미지를 연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주색은 색 선호도에서 낮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이는 정치인 선호도에서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 색 연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해찬은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는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비타협적인 성격이 두드러짐에도 거침없는 언행과 소신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이해찬의 모습이다. 따라서 선호도는 낮지만 이해찬의 이미지는 일반인들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고건은 녹색과 밤색, 이명박은 빨강색과 파랑색, 정동영은 노랑색과 파랑색, 손학규는 하늘색과 파랑색, 이해찬은 빨강색과 자주색으로 연상되었다. 이는 색이 가지는 이미지와 상징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어 사람의 이미지를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 정치인의 이미지 평가와 연상되는 색

	고건	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중요 이미지	중후한 침착한 강한 보수적인	강한 활동적인 딱딱한	진보적인 활동적인 화려한	부드러운 침착한	딱딱한 차가운 홍분하기 쉬운
연상되는 색	녹색 밤색	빨강 파랑	노랑 파랑	하늘색 파랑	빨강 자주

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별·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색채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성별·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와 정치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며,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 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피험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40대 성인 남녀 256명으로서 편의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색채 이미지 평가의 차이

전체적으로 하늘색, 파랑, 녹색의 순으로 차가운 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밤색과 자주색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파랑색, 여자는 하늘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20대는 하늘색과 파랑색의 선호도가 높고, 30대에서는 녹색의 선호도가 높으며, 40대는 녹색과 하늘색, 파랑색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색채 선호도의 차이에서는 보라색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자보다 여자가 보라색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녹색과 밤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녹색은 30대가 더 선호하고 있었고 밤색은 40대가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색채 이미지 평가에서 빨강색은 따뜻하고, 활동적이며, 흥분하기 쉽고, 화려하고, 진보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빨강색의 이미지 평가는 여자가 남자보다 빨강색을 더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20·40대가 30대보다 빨강색을 더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주황색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며 화려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주황색의 이미지 평가는 여자가 남자보다 주황색을 더 활동적이고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30·40대가 20대보다 주황색을 더 따뜻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노랑색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고 가볍고 활동적이며 약하고 화려하며 진보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노랑색의 이미지 평가는 여자가 남자보다 노랑색을 더 활동적이고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와 30대가 40대 보다 노랑색을 더 감성적이고 약한 이미지로 평가하고 있으며, 40대가 2·30대 보다 노랑색을 더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녹색은 침착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연령에 따른 녹색의 이미지 평가는 30대와 40대가 20대보다 녹색을 더 차갑고 정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늘색은 약하고 침착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하늘색의 이미지 평가는 여자가 남자보다 하늘색을 더 약한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파랑색은 차갑고 강하며 침착하고 중후하고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파랑색의 이미지 평가는 여자가 남자보다 파랑색을 더 이지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 20·30대보다 파랑색을 더 차가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20대가 30·40대보다 더 중후한 이미지로 평

가하였다.

밤색은 중후하고 침착하며 수수하고 강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밤색의 이미지 평가는 여자가 남자보다 밤색을 더 침착한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 20·30대 보다 밤색을 더 강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라색은 화려하고 강하며 중후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보라색의 이미지 평가는 남자는 차가운 이미지로 여자는 강한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30·40대보다 보라색을 더 딱딱하고 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주색은 감성적이고 화려하며 따뜻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자주색의 이미지 평가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색을 강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와 정치인 이미지 평가의 차이

전체적으로 고건과 이명박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이해찬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고건과 이명박에 대한 선호도는 40대가 20·30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동영에 대한 선호도는 20·30가 40대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인 이미지 평가에서 고건은 중후하고 침착하며 강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 20·30대 보다 고건에 대해 더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성적이고 보수적이며 침착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이명박은 강하고 활동적이며 다소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진보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 20·30대 보다 더 활동적이고 강하며 수수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대는 20·40대 보다 보수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정동영은 진보적이고 활동적이며 부드럽고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하며 침착한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30·40대 보다 정동영에 대해 더 부드럽고 따뜻하며 중후하고 침착하며 강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손학규는 전반적으로 이미지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20·40대 보다 더 가벼운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이해찬은 딱딱하고 차가우며 흥분하기 쉽고 가벼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 20·30대 보다 더 딱딱하고 활동적이며 가볍고 진보적이며 강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3) 정치인과 연상되는 색

고건과 연상되는 색으로 녹색과 밤색이 많았다. 녹색은 침착하고 강하며 밤색은 중후하며 보수적인 이미지의 색으로, 이는 고건의 중후하고 침착하며 강하고 보수적인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였다.

이명박과 연상되는 색으로 빨강색과 파랑색이 많았다. 빨강색은 강하고 활동적이며 파랑색은 차가운 이미지의 색으로, 이는 이명박의 이미지가 강하고

활동적이며 딱딱한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였다.

정동영과 연상되는 색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이 많았다. 노랑색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활동적이고 진보적이며 화려하며 파랑색은 이지적인 이미지의 색으로, 이는 정동영의 이미지가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활동적이고 진보적이며 화려한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였다.

손학규와 연상되는 색으로 하늘색과 파랑색이 많았다. 하늘색은 부드러우며 파랑색은 침착한 이미지의 색으로, 이는 손학규의 이미지가 부드럽고 침착한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해찬과 연상되는 색으로 빨강색과 자주색이 많았다. 빨강색은 흥분하기 쉬운 이미지의 색이고 자주색은 빨강색과 의미는 비슷하나 더 강하고 어두운 이미지의 색으로, 이는 이해찬의 이미지가 딱딱하고 차가우며 흥분하기 쉽고 가벼운 이미지 평가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비교적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이미지를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색이 가지는 이미지와 상징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어 별도의 언어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대상을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에서 40대로 한정하였고 응답자의 선정에 있어서 편의 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측정도구가 표준화된 검사지가 아닌 설문조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색 선호도와 색 이미지 평가를 위한 색으로 9가지 유채색을 사용하고 무채색을 배제하여 색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는 점이다.

넷째, 정치인을 선정하는데 있어 여성 정치인을 제외한 남성 정치인으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색상의 채도와 명도가 고채도, 중명도로 편중되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저채도 저명도, 저채도 고명도의 색과 무채색을 통한 색과 사람의 이미지 연구와 정치인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포지셔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서적

- 김학성(1991). 『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 메리 램버트(2001). 『색다른 색이야기』. 나들목.
- 모던 워커, 김은경 역(1999). 『Power of color』. 교보문고.
- 미미 쿠퍼, 앨린 매튜(2002). 『컬러비즈니스 Color Smart』. 오늘의 책.
- I.R.I 색채 연구소(2003). 『Color combination』. 영진팝.
- 이기문(1995)감수. 『동아 새국어 사전』. 동아출판사.
- 이흥규(1999). 『칼라이미지사전』. 조형사.
- 21세기 연구회(2004). 『하룻밤에 읽는 색의 문화사』. 예담.
- 인리드 리텔, 정여주 역(2004). 『색의 신비』. 학지사.
- 하용득(1989). 『한국의 전통 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 한국색채학회(2002). 『컬러리스트』. 도서출판 국제.

국내 논문

- 강동구(2004). 「선거공보를 통한 정치인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정(2002). 「시각적 촉감과 색채감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1993). 「색채를 통해 본 사물의 이미지 표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여선, 김선희, 권오상, 여명선.(2001)「한국어 색채 서술 형용사의 심리적 구조분석」. 『한국색채학회지』.vol.15No.1, pp.21~28.

- 김영수(2000). 「정치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한나(2004). 「선호색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색채감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경(2003). 「정치인 이미지가 미디어상에 나타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1999). 「색채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색채계획 도주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경(1999). 「환경에 따른 아동의 색채 선호도와 색채 심리분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재(2004).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험연구」. 『언론과 사회』. vol.12 No.4, pp.118~121.
- 최현정(2003). 「신용카드 색채이미지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옥(2001). 「기업의 아이덴티티 구축 방안을 위한 색채전략 연구: 화장품 회사의 색채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 ‘2007년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2005, 1.31.) 조선일보, 7면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매일경제 2002. 6.14.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http:// www.opm.go.kr/waep/webapp/content](http://www.opm.go.kr/waep/webapp/content)국무총리실 자료마당

<http://100.naver.com> 두산세계대백과/ politics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9/200509230068.html>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9/200509200220.html>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9/200509210227.html>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9/200509220293.html>

<http://www.chadaeja.com/colum&news>

<http://www.hankooki.com/politics/news>

<http://www.hani.co.kr/news/politics>

ABSTRACT

A Study on Images of Some Korean Politicians Anticipated as Presidential Candidates in 2007

- With a Focus on Association of Color Image -

Park, Soo Hong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politicians' image through color. As a methodology,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convenient sampling was used for 256 respondents, male or female, who reside in Seoul and its adjacent areas and are in their 20s through 40s. In order to analyze data collected,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10.0 program.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1) Politician Preferences

On the whole, preference for Gun Koh and Myung-bak Lee was high, and in contrast Hae-chan Lee has the lowest preference. In particular, Gun Koh gains high preferences from individuals in their 40s, and Dong-yung Jung gains high preferences from individuals in their 20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olitician preferences depending on gender, while respondents who are in their 40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2) Evaluation of Politician Image

Gun Koh was evaluated as generous, staid, strong and conservative image. Male respondents evaluated him softer, warmer, and more emotional and active than female respondents did, and individuals in their 40s evaluated him softer, warmer, more emotional, more conservative, staid, and more plain than female individuals did.

Myung-bak Lee was evaluated as strong, active, and ceremonious image. Female respondents evaluated him as more progressive than male respondents did. Respondents in their 40s evaluated him as more active and plain than those in their 20s or 30s, while those in their 30s evaluated him more conservative than those in their 20s or 40s.

Dong-yung Jung was evaluated as progressive, active, soft and magnificent image. Male respondents evaluated him as softer, warmer, and more staid than female respondents did. Individuals in their 20s evaluated him as softer, warmer, more generous, more staid, and stronger than those in their 30s or 40s did.

Hak-gyu Sohn recorded lower scores in the image evaluation on the who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mage evaluation on him by gender. Respondents in their 30s evaluated him as more undignified than those in their 20s or 40s did.

Hae-chan Lee was evaluated as ceremonious, cold, agitated, and undignified imag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age evaluation on him by gender. Respondents in their 40s evaluated him as more ceremonious, active, undignified, progressive, stronger and more plain than those in their 20s or 30s.

3) Politicians and Associating Color

Color associating Gun Koh was mainly green and brown. Green represents staidness and strongness, brown represents generosity and conservativeness, being consistent with the image evaluation on him featuring generous, staid, strong, and conservative image.

Color associating Myung-bak Lee was mainly red and blue. Red represents strongness and activeness, and blue represents ceremoniousness, demonstrating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image evaluation on him featuring strong, active, and ceremonious image.

Color associating Dong-yung Jung was mainly yellow. Since yellow represents softness, warmth, activeness, progressiveness, and magnificence, this shows that the color is consistent with the soft, warm, active, progressive and magnificent image that represents evaluation on him.

Color associating Hak-gyu Sohn was mainly azure. Since azure represents softness, this shows that the color is consistent with the soft and staid image that represents evaluation on him.

Color associating Hae-chan Lee was mainly red. Since red represents agitated image, this shows that the color is consistent with the agitated image that represents evaluation on him.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지는 색 이미지와 정치인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분장예술학 전공

석사과정 박 수 홍

e-mail: mrssoo@hanmail.net

지도교수 구 자 명

2005년 9월

1. 다음은 정치인의 선호도와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하여 주십시오.

고건, 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얼굴을 알고 있다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위의 질문에 ① 그렇다에 응답하신 분에 한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2. 다음은 정치인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시된 정치인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 칸에서 하나만 골라 그 번호에 ○표 하십시오.

	매우 싫어 한다	싫어 한다	보통이다	좋아 한다	매우 좋아 한다
① 고 건	1	2	3	4	5
② 이명박	1	2	3	4	5
③ 정동영	1	2	3	4	5
④ 손학규	1	2	3	4	5
⑤ 이해찬	1	2	3	4	5

3. 다음은 정치인 이미지에 관한 양극으로 이루어진 형용사입니다. 각각의 정치인이 주는 느낌에 대하여 적절히 형용사를 생각해 보시고 각 형용사에 해당하는 정도를 한 개의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고 건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2) 이명박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3) 정동영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4) 손학규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5) 이해찬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4. 다음은 각각의 정치인 이미지를 색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정치인과 아래의 제시된 색 중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고 느껴지는 색을 두 가지만 골라 ○표하여 주십시오.

예) 예를 들어 녹색과 파랑이 고건의 이미지와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될 때 녹색과 파랑의 칸에 ○표한 예입니다.

	①빨강	②주황	③노랑	④녹색	⑤하늘색	⑥파랑	⑦밤색	⑧보라	⑨자주
고 건				○		○			

1) 고 건

	①빨강	②주황	③노랑	④녹색	⑤하늘색	⑥파랑	⑦밤색	⑧보라	⑨자주
고 건									

2) 이명박

	①빨강	②주황	③노랑	④녹색	⑤하늘색	⑥파랑	⑦밤색	⑧보라	⑨자주
이명박									

3) 정동영

	①빨강	②주황	③노랑	④녹색	⑤하늘색	⑥파랑	⑦밤색	⑧보라	⑨자주
정동영									

4) 손학규

	①빨강	②주황	③노랑	④녹색	⑤하늘색	⑥파랑	⑦밤색	⑧보라	⑨자주
손학규									

5) 이해찬

	①빨강	②주황	③노랑	④녹색	⑤하늘색	⑥파랑	⑦밤색	⑧보라	⑨자주
이해찬									

5. 다음은 색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시된 색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 칸에서 하나만 골라 그 번호에 ○표 하십시오.

	매우 싫어 한다	싫어 한다	보통이다	좋아 한다	매우 좋아 한다
① 빨강	1	2	3	4	5
② 주황	1	2	3	4	5
③ 노랑	1	2	3	4	5
④ 녹색	1	2	3	4	5
⑤ 하늘색	1	2	3	4	5
⑥ 파랑색	1	2	3	4	5
⑦ 밤색	1	2	3	4	5
⑧ 보라	1	2	3	4	5
⑨ 자주	1	2	3	4	5

6. 다음 문항은 색 이미지에 관한 양극으로 이루어진 형용사입니다. 각 색이 주는 느낌에 대하여 적절히 형용사를 생각해보시고 각 형용사에 해당하는 정도를 한 개의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빨강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2) 주황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3) 노랑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4) 녹색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5) 하늘색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6) 파랑색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2-----3-----4-----5-----6-----7		침착한
⑧ 약한	1-----2-----3-----4-----5-----6-----7		강한
⑨ 화려한	1-----2-----3-----4-----5-----6-----7		수수한

7) 밤색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	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	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	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	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	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	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	2-----3-----4-----5-----6-----7	침착한
⑧ 약한	1----	2-----3-----4-----5-----6-----7	강한
⑨ 화려한	1----	2-----3-----4-----5-----6-----7	수수한

8) 보라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	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	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	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	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	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	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	2-----3-----4-----5-----6-----7	침착한
⑧ 약한	1----	2-----3-----4-----5-----6-----7	강한
⑨ 화려한	1----	2-----3-----4-----5-----6-----7	수수한

9) 자주색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① 부드러운	1----	2-----3-----4-----5-----6-----7	딱딱한
② 따뜻한	1----	2-----3-----4-----5-----6-----7	차가운
③ 감성적인	1----	2-----3-----4-----5-----6-----7	이지적인
④ 활동적인	1----	2-----3-----4-----5-----6-----7	정적인
⑤ 가벼운	1----	2-----3-----4-----5-----6-----7	중후한
⑥ 보수적인	1----	2-----3-----4-----5-----6-----7	진보적인
⑦ 흥분하기 쉬운	1----	2-----3-----4-----5-----6-----7	침착한
⑧ 약한	1----	2-----3-----4-----5-----6-----7	강한
⑨ 화려한	1----	2-----3-----4-----5-----6-----7	수수한

6.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 ② 여자 ()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직업은?

① 사무직 () ② 전문직 () ③ 서비스직 () ④ 학생 ()

⑤ 주 부 () ⑥ 무 직 () ⑦ 기 타 ()

4)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① 서울 () ② 인천, 경기도 () ③ 그 외 지역 ()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